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붉은 힘

공군



국민
조종사
날다!



박지선 김윤주 박정득 정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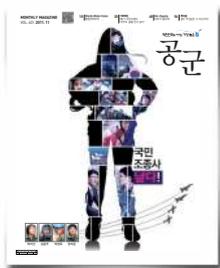


- 06 삼각지 논객 '군바리'에 대한 불편한 인식
- 08 Pioneers up above 항공의 선구자 라이트 형제와 동력항공기의 출현
- 10 World-Wide Vision 통합전력부대
- 14 Global AF 현대 공중전의 역사를 쓰다, 라인베커 작전
- 18 Leadership+ 선행이 성공의 비결



- 20 기획특집 제3기 국민조중사, "모두의 꿈을 안고 날다"
- 30 Photo Sketch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한 Seoul ADEX 2011 현장을 가다!
- 32 포토프레임@AF
- 34 AIR FORCE MONTHLY 2011. 11. News
- 38 생각하는 그림 길 위에서 로봇을 만났을 때

COVER STORY



제3기 국민조중사, "모두의 꿈을 안고 날다"
 일러스트 장우룡 | 만화가
 표지제작 강은혜 | 한양대 산업디자인 박사과정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장화신은 고양이
- 44 인생은 아름다워 자유를 향한 유쾌한 에피소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 46 Art in Everyday 고양이를 부탁해
- 48 Air-Supply 위로가 필요해
- 50 Preview 11월의 문화행사

OPINION

52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9월호를 읽고서
- 52 독자기고 젊음을 속성시키는 터전, 空軍
- 54 Health Diary 정신건강, 건강의 첫걸음
- 56 책마을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MONTHLY MAGAZINE

VOL. 401. 2011. 11

발행일자 2011년 10월 28일(통권 제401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10월호(400호) 스타들의 축하메시지 영상을 담은 QR코드의 사이즈가 작아 스캔이 쉽지 않았기에 이번호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9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가을]**이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월간 「공군」 역시 공군작전을 펼치기 좋은 가을하늘처럼 상쾌하고 설레며, 「공군」을 구독하는 모든 공군장병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기사는 <생각하는 그림>의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줄게'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 앤 설리번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일이 이토록 이롭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경기 남양주, 이영록

02 월간 「공군」은 **[아이돌]**이다. 많은 공군장병들이 TV속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서 일상 속 활력을 얻는 것처럼, 월간 「공군」을 보면서 매달을 즐겁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Health Diary>의 '건강검진, 유비무환의 자세로!' 라는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제까지 '20대라 문제없어'라는 생각으로 이제껏 지내왔는데, 단지 발병위험이 낮을 뿐이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병치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 경기 성남시, 최동현

월간 「공군」은 **[이웃사촌]**이다. 공군과 항상 함께 가까이 하면서 보고 싶으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아주 친한 이웃이다. 이번 호에서는 <삼각지 논객>의 '대한민국 공군의 Peace Eye 도입을 축하하며'라는 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첨단능력을 갖춘 조기경보기 피스아이가 도입되어 우리 공군의 작전능력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FX사업과 더불어 공중급유기 사업도 빨리 추진되어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선진강군으로 진일보하기를 바랍니다. - 부산 해운대, 박영웅

04 월간 「공군」은 **[산소]**다. 사회에 있었을 때 보던 「공군」을 군에 입대해서 보니 신선하고 반가웠습니다. 공군에 입대해서 다시 보는 「공군」은 제 남은 군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산소라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Global AF>의 '태평양 전쟁 최대의 해상공중전, 마리아나 항공전'을 재밌게 봤습니다. TF-58 운용에 있어 마크 미셔 제독의 과단성이나, 일본항공대의 피해누적정도를 통해 마리아나 항공전이 결정적으로 태평양 남서제도 제해/제공권의 이동의 계기가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대구 동구, 왕중문

월간 「공군」은 **[비행]**이다. 한 달 여러 곳을 비행하게 해주 다 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비행하며 공군의 역사, 비전, 앞으로의 모습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의 '다른 나라의 공군군악대 소개'라는 글을 재밌게 봤습니다. 공군군악대의 공연을 좋아하고 즐겨보는 독자로서 다른 나라 공군군악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공군군악대를 사진과 글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경기 안양시, 정지형

06 월간 「공군」은 **[가족]**이다. 제 사위가 공군 법무관이라 월간 「공군」을 접하게 된 뒤로 관심있게 읽고 있습니다. 공군가족임을 월간 「공군」을 통해 느낍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의 '공군군악대' 기획 전반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공군군악대 공연을 보며 공군군악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월간 「공군」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군가족임을 느끼게 해준 월간 「공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획으로 공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동작구, 김경희



Global & Insight

‘군바리’에 대한 불편한 인식

* 삼각지 논객

항공의 선구자 라이트 형제와 동력항공기의 출현

* Pioneers up above

통합전력부대

* World-Wide Vision

현대 공중전의 역사를 쓰다, 라인베커 작전

* Global AF

선행이 성공의 비결

* Leadership+

‘군바리’에 대한 불편한 인식



얼마 전 스페인 출장 때 현지 군수업체의 주선으로 세비아 인근의 모른 공군기지를 방문하게 됐다. 부대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부대장의 주최로 기지 안에서 오찬도 함께하게 됐는데 마침 취재 일정상 그 자리를 주선했던 군수업체 대표와 인터뷰를 서둘러야 했다. 정중히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No’였다. ‘오찬에 초대해준 부대장과의 식사 도중에 인터뷰를 핑계로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오찬을 마치고 부대를 떠난 직후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양해를 부탁해왔다. 현지 통역은 “제국주의 체제였던 스페인에선 아직도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일반인들의 인식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귀띔했다.

마침 스페인에 도착했던 며칠 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한 날(10월 12일)을 기념한 최대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에 국왕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펼쳐진 군 퍼레이드로 낯선 외지인에게 교통 정체까지 감수하게 했던 사정도 사뭇 이해가 됐다.

한편으로는 얼마 전, 술 한 잔 기울이며 푸념을 털어놓던 군인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국방부로 출입하게 되면서 만나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내게 된 한 장교 후배가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군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소재는 간단했다. ‘군바리’라는 단어의 뜻 때문이었다. 나름 기자 생활 10년이 넘었다는 필자조차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그렇게 막막하게 술잔을 비우고 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형님. 군바리에서 바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리가 ‘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런저런 자료를 뒤지다가 ‘군바리’는 ‘시다바리’처럼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바리’가 붙은 단어로, 바리는 ‘무리’라는 뜻의 일본어 ‘바라(糺·ばら)’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찾게 됐다. 어떤 자료에는 애완견을 뜻하는 ‘발바리’에서 유래됐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주장도 있다. 순 우리말 중에 ‘~바리’로 끝나는 말이 많다. ‘바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더듬바리’는 말더듬이를, ‘피바리’는 피보름, ‘악바리’는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을 뜻한다. 제주도의 방언에도 ‘비바리’라는 말이 있는데 ‘처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6·25 당시 육군 제1훈련소가 있던 제주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주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을 ‘군바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후에 이 말이 육지로 퍼졌다는 것이다.

어원이야 어쨌든 ‘군바리’는 군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써 있다. 그동안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는 이력으로 수많은 술자리 등에서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나 자신과 다른 군인을 군바리로 애칭(?)해왔는데 앞으로는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배에게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병역 의무를 지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그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가족이어서 군인에 대한 애정이나,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자신 스스로를 부르는 말로 ‘군바리’라는 용어를 무심코 쓰는 것이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위로했다.

위안이 됐는지 확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후배는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줬다. 그 군인 후배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시절, 현지인에게서 저녁 만찬에 초대받아 정복을 입고 외출을 했다고 한다. 꽤 먼 거리의 외출이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미국인 할아버지가 고맙게도 동승을 제의해왔다고 한다.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자신이 6·25 참전용사였다고 밝힌 미국인 할아버지에게서 한국에 대한 애정과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게 그 군인 후배의 전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군인은 꽤 존경받는 직업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에게서 하와이 진주만이 무차별 폭격을 받긴 했지만, 독립 이후 본토에 대한 침공을 허락하지 않았던 미국 사회에서 군인에 대해 예우하는 풍토가 자리 잡은 데는 ‘세계 경찰’을 자부하며 해외에서의 수많은 전쟁에 참가했던 경험과 이면으로 감내해야 했던 미국인들의 희생 등이 녹아 있으리라 짐작해본다.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한국에선 군인이 경시를 당해야 하나. 우리 사회에 정말 군과 군인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자리 잡고 있을까? 더구나 6·25라는 뼈아픈 과거와 아픔을 간직한 나라의 국민이?'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가 그동안 분단의 현실에 내성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군의 존재감을 망각해온 것은 아닐까'라는 진단도 해보았다. 또 '오랫동안 군사 독재 시절을 겪은 터여서 그에 따른 거부감이 인식 한편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닐지'도 되짚어봤다. 최근 공군 조종사들의 잇따른 민간 항공사 유출 문제도 임금, 복지 등 경제적인 원인의 이면에 이런 사회 경시 풍조에 대한 반감 내지 탈피 의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짐작해봤다.

사정이 이렇다면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 **군바리라는 말 속에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집단 권력화에 대한 우려의 눈빛이 담겨 있다면 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도 건전한 사고와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군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이는 단지 조직 개편이나, 뜻조차 모호한 개혁, 혁신으로만 포장되어선 안 된다.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며 내부에 있을지 모를 구태를 벗어 던져야만 일반의 편향된 인식도 차츰 녹여낼 수 있다. 또한 군복에 담겨 있는 품위와 명예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모아질 때 군바리라는 비속어보다는 군인을 예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츄츄하게 짜인 현대 사회 구조의 메커니즘 속에서도 군이 얼마나 소중한 밑바탕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두 말할 필요 없는 일반 인식이다. 그 튼튼한 바탕을 두고 선호도를 높이는 일쯤은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는 군인정신으로 이루기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며칠 전 성황리에 끝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11)'이나,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해군의 국제해양대전 등도 국민에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군의 노력으로 꽤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 삼아 군에 위안을 준다면, 그래도 군인(軍人)은 '기자(記者)' 보다는 신세가 훨씬 낫다. 군인은 사람 인(人)을 쓰는데 비해 기자는 놈 자(者)를 쓴다. '선비 사(士)'자가 들어간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놈 자'자 쓰는 기자보다야 사람 대접 받는 군인이 훨씬 우위의 직종일 것이다. **AF**

아무튼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여러분은 우리 형제자매인 **가족**입니다."



항공의 선구자

라이트 형제와 동력항공기의 출현 ②

1907년, 라이트 형제는 개발한 항공기의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순회비행을 했다. 월버가 먼저 8차 곡예비행으로 관중을 사로잡았고, 이어서 오빌이 한 시간 넘게 각종 비행을 선보였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은 이제까지의 비행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광경에 모든 관중과 관료, 산업 및 언론 지도자들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술에 완전히 승복하였고, 그동안 빛 값이라고 욕박질렀던 자본주들도 모두들 나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형제는 마침내 프랑스 정부 및 미 육군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1908년 5월 14일 월버가 비행사고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월버는 더 이상 비행을 못하게 되었다.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9월 17일, 포트마이어(Fort Myer)에서 미 육군 정찰비행 시범 중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승한 장교가 사망하고 오빌은 왼쪽 다리와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급히 찾아간 기자들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게 무엇이나”고 묻자, 오빌은 “이까짓 사고로 멋진 시험비행을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답했다. 교사였던 여동생 캐더린이 급히 현장에 내려와 오빌을 돌보았다.

그러는 와중에 1909년 연초부터 형제의 시범비행은 미 전역과 유럽에서 명성을 날렸다. 월버는 시속 64킬로미터의 속도로 맨하탄 자유의 여신상을 돌아오는 비행으로 1백만 명이 넘는 관중을 흥분시켰고, 오빌은 허드슨강 상공에서 1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하여 뉴요커들을 매료시켰다. 이에 고무된 오하이오 출신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은 라이트 형제와 여동생 캐더린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훈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고향인 오하이오 주는 형제가 귀향한 날부터 이틀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다양한 축하행사를 펼쳤다.

그해 11월, 형제는 라이트항공사를 설립한다. 월버와 오빌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항공기의 발명특허권은 10만 불, 증권수익의 33%, 항공기 판매액의 10%를 로열티로 받기로 하고 모든 권리를 이 항공사에 위임했다. 라이트항공사는 데이톤의 허프만 프레이리에 항공기 공장과 비행학교, 시험비행장을 설립하고 본사는 뉴욕에 두었다.

1910년 5월 25일, 오빌은 허프만 프레이리에서 매우 특별한 두 차례의 비행을 실시했다. 첫째는 사상 처음으로 형 월버와 동승하여 6분 동안 함께 비행했으며, 둘째는 82세의 부친 밀턴을 태우고 7분간 비행한 것이었다. 월버와 오빌은 부친에게 절대로 둘이 동시에 함께 타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이다. 부친 밀턴은 비행 중 흥분하여 “오빌, 더 높이! 좀더 높게!”하고 소리칠 정도였다. 이로써 35년 전 아버지가 들었던 바람개비 장



오빌의 비행사고 (1909. 9. 17, Fort Myer)

난감으로 시작됐던 라이트 형제의 항공의 도전은 마침내 온 가족의 비행으로 꽃피우고, 나아가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비행이란 결실을 가져왔다. 이 역사적인 가족비행은 또한 라이트항공사의 제품신뢰도를 세상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보조날개항공기 특허권을 놓고 라이트 형제는 커티스와 장기간에 걸친 법정투쟁을 벌여, 1907년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1908년 7월 4일 글렌 커티스(Glenn Curtiss)가 사상 처음으로 1km 비행에 성공하자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의 보조날개특허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커티스가 이를 거부하자 라이트 형제는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에어쇼에 참가한 프랑스의 루이 폴한(Louis Paulhan)도 같은 이유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커티스는 이리다간 라이트 형제가 세계의 모든 비행사들을 다 고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와중에 형 월버는 1912년 보스턴 여행 중 얻은 병으로 작고하게 된다. 1913년, 오빌은 마침내 승소해 로열티를 받게 되지만, 커티스가 이에 반발, 긴 법정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 국방부는 항공기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항공사에 로열티로 2백만 불씩 동등하게 지불, 특허권논쟁은 중지부를 찍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회사는 1929년 합작회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1910년 11월 7일, 라이트항공사는 사상 처음으로 데이톤에서 65마일 떨어진 콜롬부스까지 승객의 항공운송에 성공한다. 당시 실크로 만든 승객용 시트벨트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기념품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1910년부터 16년 사이 라이트항공사의 비행학교는 오빌과 그의 조교가 교관을 맡아 총 115명의 조종사를 배출했는데, 그들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미 육군항공단장을 역임하고 육군원수로 승진한 후, 초대 미 공군참모총장이 된 헨리 '해' 아놀드같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1913년까지 비행사고로 숨진 사망자수가 11명에 이르자 미 국방부는 항공기의 구조적 결함으로 결론짓고 라이트와 커티스 두 항공사의 항공기 구매를 중단시켰다. 사고는 주로 항공기가 지상에 거꾸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방엔진이 조종사에게 덮쳐 사망한다는 원인이 제기되자, 이를 계기로 항공기 엔진을 후미에서 전방으로 장착하게 되었다. 오빌은 특허권에 지장이 있을까봐 엔진의 전방이동 장착에 단호히 반대했지만, 결국 전방장착 엔진이 보편화되면서 항공기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다.

오빌은 당대 최고의 조종사였지만 사업수완은 그렇지 못했다. 강직한 성품으로 항상 주변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했다. 1915년 오빌은 사업을 정리하고, 오하이오 오크우드 호손힐 맨션으로 이사한다. 1917년, 부친 밀턴이 작고한다. 1918년 오빌은 고별비행을 끝으로 비행생활을 접었고, 그후로는 국가항공산업위원회(훗날 NASA)의 위원장으로서 28년간 미국의 항공산업발전을 이끌었다.

1944년 4월 19일은 하워드 휴즈가 7시간 만에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워싱턴까지 2,300마일을 비행한 날이다. 휴즈는 귀환 도중 오하이오의 허프만 프레이리에 착륙, 오빌을 만나 첫 비행 후 40년 만에 마지막 비행을 해보도록 권유하였다. 오빌은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본 뒤 "이 항공기의 날개폭이 자신의 첫 비행거리보다 더 길다"라는 코멘트를 남긴다.

동력비행을 처음 시작했던 오빌은 초음속 비행이 출현한 시기인 1948년 1월 30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월버와 오빌은 오하이오 오크우드(Oak Wood)에 있는 우드랜드(Woodland)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혀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항공매니아들이 오하이오의 라이트 형제 항공유적지를 찾는다. 이들은 인디애나의 월버가 태어났던 시골집까지 찾아가면서, 어린 시골소년들의 하늘에 대한 도전정신을 기린다. **AF**



벨몬트 공원의 라이트 형제(1910)



Total Force Flight

통합전력부대

Reserve, Guard and active-duty team performs
downrange aeromedical evacuations

예비군, 주방위군 그리고 현역의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는 항공의무후송팀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서 386원정 항공의무후송 중대 요원들이 C-130 허큘리스 항공기에 환자를 탑승시키는 모습. 알 아사드 공군기지는 항공의무후송 요원들의 4개의 임무 기지 중 2번째 기지이다.

2만 피트 상공을 날아 작전지역에 도착했다. 미 공군 주 방위군과 예비군 소속의 의무요원들은 현역 공군조종사들이 조종하는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한 작전에 나선다. 이러한 통합적 전력이 참여하는 작전은 항공의무후송 요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임무이다.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과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의무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전방기지에 파병된 요원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어디서나 유감스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미 공군 386원정 항공의무후송 중대(386 Expeditionary Aeromedical Evacuation Flight)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라도 달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의 임무는 환자를 현장에서 신속히,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무시설까지 수송하는 것이다.

C-130으로 도착한 항공의무후송팀은 상황의 긴급성을 파악한 후, 임무에 착수한다. 의무요원은 들어오는 환자를 즉시 눕히기 위한 것들을 조립한다. 항공간호사들은 의료차량과 항공기를 오가며 모든 의료장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항공기로 집결한지 30분 이내에 항공의무후송팀은 후송준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다.

“전장에서 부상당하거나 아픈 병사를 후송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돕는 일은 매우 보람된 일입니다.” 윌리엄 사이크스(William Sykes) 중위가 말한다.

“우리가 다루는 부상병들은 제대로 된 병원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장지역으로부터 후송되어야만 하죠.” 의무요원인 엘빈 폴리노(Elvin Paulino) 하사가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의무후송 요원들의 역할이 빛난다. “우리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항공기를 병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응급치료를 위해 환자가 항공기에서 급히 내린다. 이때 모든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환자를 치료하고, 항공기로 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시 비행한다.

임무 중인 미 공군 항공의무후송 요원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보살핀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합니다.” 386원정 항공의무후송 중대의 윌리엄 사이크스(William Sykes) 중위가 말한다. “우리는 전장에서 아프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이 치료를 받고 곧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매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들 의무요원은 항상 군복을 착용하는 현역군인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상시 직업은 이들의 임무에 전문성을 더해준다.

“이곳에서 저는 항공간호장교이지만, 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미시간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입니다. 군 임무가 저희에게 파트타임(part-time)이긴 하지만, 의료관련 업무에는 풀타임(full-time)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이크스 중위가 말한다.

민간과 군을 넘나드는 실무경험을 통해, 미 공군 주 방위군 및 예비





군 소속의 의무요원들은 업무에 역동성을 가져오고 다양한 경험을 보낸다.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실제 임무에서 어떠한 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을 겪어봤을 가능성이 높죠.” 사이크스 중위가 말한다. “민간 간호사로 있으며 배운 것들이 이번 파병지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 공군 주 방위군 및 예비군 소속의 의무요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협조해 하나로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는 통합전력(Total Force)이라 할 수 있다.

“완벽한 팀워크야말로 우리 팀의 생명입니다.” 737원정 항공수송대대의 로드마스터(load master) 오린 벡 (Orin Beck) 병장이 설명한다. “항공의무요원이 탑승 시, 승무원의 일부로 우리는 한 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항공의무후송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장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한 후,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임무는 마치 레이스(race)의 마지막 부분과 같습니다. 가장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시합을 끝내기 직전인 결승점이지 않습니까?” 사이크스 중위가 묻는다.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습니다. 하지만 후송임무를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끝마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AF**

1	4
2	5
3	6

1. 737원정 항공수송대대의 조종사인 제레미 아몰드 (Jeremy Aamold) 소령이 항공의무후송 임무를 위해 C-130 허큘리스 수송기로 이라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아몰드 소령과 항공승무원들은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종합의료시설로 환자를 옮기는 임무를 맡았다. 이를 위해 이라크 내 4개의 기지를 거쳐 환자를 후송하곤 한다.
2. 737원정 항공수송대대 및 386원정 항공의무후송 중대 요원들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 서남아시아 지역의 어느 기지에서 환자 후송을 위해 C-130 허큘리스 수송기로 환자를 탑승시키고 있다.
3. 나자리오 헤리버토 (Nazario Heriberto) 중사가 환자의 말초정맥도관 (PVC)의 테이핑을 고치고 있다.
4. 이라크에서 386원정 항공의무후송 중대 소속 도널드 헤밍하우스 (Donald Heminghaus) 상사(좌측)와 나자리오 헤리버토 중사가 후송임무 전, C-130 항공기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5. 이라크에서 미 육군 소속 월터스 (Walters) 상병이 의무후송 임무비행을 위해 환자를 C-130 허큘리스 수송기로 태우고 있다.
6. 이라크에서 386원정 항공의무후송 중대 소속 나자리오 헤리버토 중사가 이륙 전 환자의 혈압과 기타 신체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군은 라인베커 작전을 통하여 북베트남을 맹렬히 공격했다. 북베트남으로 비행중인 미 공군의 SAM 헌터-킬러 팀의 모습이다.

세계주요항공전사 ⑤

현대 공중전의 역사를 쓰다.

라인베커 작전

1968년 11월 5일, 리처드 닉슨이 제3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게 됐다. 베트남화(Vietnamization)¹⁾라는 기치 아래 미군은 남베트남에게 군사장비와 물자를 공급하면서 베트남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출구전략이 정해진 것이다. 새로운 정책과 함께 닉슨은 과거 미군의 전략적인 목표에서 제외되었던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폭격을 실시한다. 브랙퍼스트 작전(Operation Breakfast)이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된 이 폭격작전은 대중으로부터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다. 이 작전을 통해 미군은 B-52 폭격기를 동원하여 14개월 동안 10만 톤이 넘는 폭탄을 퍼부었다.

1. 베트남화(Vietnamization)란 미국이 자상군은 철수시키되 그 뒤의 자상전투의 책임은 월남 정부군이 맡을 수 있도록 미국이 월남 정권에 무기, 장비, 자재를 제공하여 군대를 훈련시키고, 달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닉슨 대통령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인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구체화시킨 정책이다.



미군은 북베트남의 병참선을 맹렬히 폭격하여 하노이 정부를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자 했다. 사진은 폭격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B-52 폭격기의 모습이다.



미 해군은 제77기동함대의 함재기를 투입하여 치열한 공중전과 공습을 반복했다. 사진은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함상기 F-4J 팬텀II의 모습이다.

작전명 라인베커

닉슨 정부의 베트남화 정책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군 철수와 남베트남에 대한 무기 및 물자지원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미군의 항공전력도 현저히 감소했다. 미군의 항공작전이 줄어들자 북베트남군의 남침투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닉슨 대통령은 공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강한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북베트남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은 공세의 수위를 늦추지 않았다. 1971년 말이 되자, 오히려 북베트남은 대규모 공세를 취할 태세를 보였다. 미군의 정찰사진에는 북베트남군이 무기를 비축하고 남베트남 국경 근처로 병력을 남하시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침공이 임박하자, 닉슨은 프라우드 딥 작전(OPERATION PROUD DEEP)을 승인하여 북베트남 심장부에 대한 폭격을 지시했다. 5일간 계속된 공습작전에서 미군은 북베트남의 주요 목표물에 대하여 1,025회의 임무비행을 실시했다. 이에 더하여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닉슨 행정부는 다시금 과감한 군사작전으로 상대방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1972년 5월 10일, 미군은 북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공습작전을 실시했다. 공습에 더하여 하이퐁 항구에 대한 기뢰설치 및 북베트남에 대한 해상봉쇄도 동시에 실시됐다. 이것이 바로 라인베커(LINEBACKER) 작전이었다. 라인베커 작전은 베트남전 최대의 공습작전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정치적인 제한을 모두 풀어버리고는 군 수뇌부가 마음껏 공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북베트남에 대한 강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라인베커 작전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하노이 및 중국 접경에서 교량, 철도 및 철도차량을 파괴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전쟁물자의 유입을 차단한다. 둘째, 주요 물자저장시설과 철도 조차장을 파괴한다. 셋째, 항구의 저장시설과 하역시설을 파괴한다. 넷째, 북베트남군의 방공망을 파괴한다.

이미 해상봉쇄를 통해 북베트남의 해상운송의 85%가 차단된 상태였다. 라인베커 작전은 마지막 병참선을 괴멸시켜 공산권 지원 국가들로부터 전쟁물자 유입을 막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당시 중국은 2개의 철로와 8개의 주요도로를 통하여 매달 평균 22,000톤의 물자를 북베트남에 제공하고 있었다.

공습 그리고 또 공습

작전 1일차인 5월 10일, 미 제7공군과 77기동함대 소속 전술기들이 발진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첫날 목표에는 하노이 북부 외곽의 옌비엔(Yen Vien) 철도 분기점과 폴도모(Paul Doumer) 다리가 포함됐다. 첫날은 무려 414소티의 비행이 있었는데, 공군이 120회, 해군이 294회를 실시했다.

한편 하늘에서는 치열한 공중전이 펼쳐져 베트남 전쟁을 통틀어 1일 최대 공중전 횟수를 기록하였다. 이날의 공중전에서 북베트남군은 MiG-21 4대와 MiG-17 7대를 잃어 모두 11대를 격추당한 반면, 미군은 F-4 팬텀 4대를 잃었다. 또한 치열한 대공포화와 100발이 넘는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으로 미 해군 함상기 2대가 격추당했다.

미군의 치열한 폭격은 계속되어 5월 말에 이르러 미군 전술기들은 중국



- 2) 롤링샌더 작전은 1965년 3월 2일부터 1969년 11월 1일까지 4년 이상 지속된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작전이다. 롤링샌더는 계획단계부터 뚜렷한 작전방침보다는 상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동적인 작전이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대공세를 취했으나 항상 세세한 작전지침에 의해 조종사와 지휘관에게 커다란 제한이 따름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 3) 플루이드 포(fluid four) 전투편대대형은 한국전쟁에서 미 공군 F-86 전투기 조종사들에 의해 고안된 편대 전술대형이다. 이 대형은 4대의 전투기가 '핑거팁(Finger Tip: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편 모양)' 대형을 유지하면서 편대장 및 분대장 2명은 적기를 공격하고 요기 2명은 후방경계를 담당하는 전술로, 공격과 방어기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 4) 루즈 듀스(loose duece)란 두 비행기가 캠프트 스프레드 대형에서 안전하게 분리하여 지원기와 교전기 역할을 맡아서 순차적으로 협공을 실시하여 공격 및 방어 상황에서 상호지원을 최적화하는 전술이다. 루즈 듀스 대형은 분대가 효과적으로 협조할 경우 전투력이 두 배 이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접경에서 하노이에 이르는 철도 구간에 있는 교량 13개를 파괴했다. 또한 하이퐁 항구에서 하노이로 이어지는 교량 4개소도 공습으로 파괴됐다. 또한 남베트남과의 비무장지대로 이어지는 철도 구간에 위치한 교량들도 파괴됐다. 교량의 파괴가 확인되자, 작전의 목표가 전환됐다. 석유저장시설과 주요교통망 및 북베트남군 항공기지가 표적이 되었다.

공습작전의 강도는 소티 횟수의 변화로 극명히 나타났다. 작전 이전의 1개월간 출격횟수는 4,327소티였지만, 작전을 전후하여 무려 27,745소티가 실시됐으며, 그중에 미 공군은 무려 20,506소티를 출격했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기간 동안 B-52는 1천여 소티를 추가적으로 비행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도 치열한 공습으로 인해 북베트남은 공세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일선부대에 대한 물자보급은 30%로 감소했다.

라인베커 작전이 계속되면서 9월에 이르자 북베트남의 물자수입량은 35~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군의 치열한 공습으로 연료저장고, 철도, 발전소, 산업공단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북베트남은 더 이상 공세가 여의치 못할 정도로 수세에 몰리자, 다시 평화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1972년 10월 23일, 닉슨 대통령이 공습을 중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라인베커 작전은 종료되었다. 라인베커 작전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대성공으로 평가되었는데, 한 장군은 "4개월간의 라인베커 작전으로 4년간 지속되었던 롤링샌더 작전²⁾보다 더욱 큰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현대 항공전의 역사를 기록하다

라인베커 작전은 현대적인 무기체계의 시험장으로 활용되면서 현대 항공전의 역사를 기록했다. 광전자유도방식 및 레이저유도방식 정밀유도탄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최초의 작전이었다. 특히 북쪽에서 하노이로 통하는 주요보급로인 폴도머 다리의 파괴에 유도폭탄이 사용되었다. 과거 롤링샌더 작전에서도 폴도머 다리는 주요목표물이었지만, 엄청난 양의 폭탄을 쏟아 부은 폭격에서도 파괴되지 않았다.

이번 공습에 동원된 미 해군의 F-4 팬텀들은 TV 카메라를 사용하는 광전 자유도폭탄을 활용하여 폴도머 다리를 공략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의 명도차를



분석하여 목표를 파악하는 광전자유도폭탄은 기상이 좋지 않아 날씨가 흐린 경우는 목표를 파괴할 수 없었다. 작전 첫날인 5월 10일의 기상상태는 좋지 않았기에 결국 해군기들의 폭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공군이 레이저 유도방식의 정밀폭탄을 투하하여 다리를 파괴함으로써 미군은 베트남전의 오랜 숙제를 드디어 해결했다.

한편 북베트남은 약 200여 대의 요격기를 투입하여 미군의 강렬한 공세에 맞섰다. MiG-21과 J-6(MiG-19의 중국 카피판), 그리고 MiG-17을 주축으로 한 북베트남 공군은 라인베커 작전 첫날 11대를 잃는 참패를 당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공중전에서 미군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기록했다. 특히 미 공군의 경우 플루이드 포(fluid four)³⁾ 편대대형에 집착한 나머지 북베트남 공군기들과의 공중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개전 후 2개월 간 격추교환율은 1:1까지 떨어졌다.

반면 미 해군은 5월과 6월 동안 무려 6:1의 격추교환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TOP GUN(미 해군 전투조종사 훈련학교)을 통하여 숙련된 인원들이 '루즈 듀스(loose deuse)⁴⁾ 전술대형을 활용하면서 상호지원을 통하여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점을 파악한 미 공군은 재빠르게 전술적인 제한을 완화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책을 내놓았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투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8월부터 미 공군의 격추교환율은 4:1까지 높아졌다.

한편 치열한 공중전에서 영웅들도 속속 등장했다. 작전 개전일에 미 해군의 F-4 조종사 랜덜 커닝햄(Randall H. Cunningham) 대위와 레이더 관제요원 윌리엄 드리스콜(William P. Driscoll) 중위는 5번째 MiG기를 격추하여, 베트남전 최초의 에이스로 기록되었다. 한편 8월 28일에는 리처드 리치(Richard S. Ritchie) 대위가 5번째 격추를 기록하면서 에이스에 등극했고, 12일 후에는 찰스 드벨리뷰(Charles B. DeBellevue) 대위가 6번째 적기를 격추시켰으며, 10월 13일에는 제프리 파인슈타인(Jeffrey S. Feinstein) 대위가 5번째 격추를 기록하면서 베트남전의 마지막 에이스가 되었다. **AF**

1. 5월 10일 라인베커 작전이 개시되자 미 해군은 약 167대의 공중을 감행했는데 그중 60%가 A-7E 코르세어에 공격기에 의한 것이었다.
2. 미군은 라인베커 작전에서 광전자 유도폭탄과 레이저 유도폭탄을 활용했다. 사진은 GBU-10 레이저 유도폭탄 2발을 장착한 F-4D 팬텀의 모습이다.
3. 미 공군은 레이저 유도폭탄을 통하여 난공불락의 폴도모 다리를 폭격하는데 성공했다.
4. 미 해군 전투조종사들은 루즈 듀스 전술을 통해 6:1의 격추교환율을 자랑하며 북베트남 MiG기들을 요격했다. 사진은 미 해군의 에이스 커닝햄 대위와 드리스콜 중위의 모습이다.
5. 커닝햄과 드리스콜 중위가 사용하던 F-4J 팬텀 함상전투기 "쇼타 임100"의 비행모습이다.
6. 미 공군도 라인베커 작전을 통해 3명의 에이스를 배출했다. 사진은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 최초로 에이스에 등극한 리처드 리치 대위의 모습이다.
7. 미 공군의 에이스 리치 대위와 드벨리뷰 대위가 사용하던 F-4D 팬텀 66-7463호기는 아직도 그 시절의 도장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LEADERSHIP

선행이 성공의 비결



나는 농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근면하고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초가집이었던 우리 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사랑채도 짓게 되었다. 부모님은 사랑채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로, 오가는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숙식처로, 6·25전쟁 직후에는 반공 포로들의 숙소로 활용했다.

일전에 고향을 찾아 우리 동네에서 십오리(6km) 가량 떨어진 곳에 사는 어른을 방문했을 때였다. 우리 집안을 잘 아는 분이 “자네 조부모와 양친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많이 했네. 자네 집안이 손자와 증손자 대에서 10여 명의 박사과 변호사를 둔 명문가가 된 이유가 그것일세.”라는 말을 듣고 자랑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실제로 우리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베품을 강조하는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나도 어른이 되고 난 후부터 가정과 회사에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성공하는 길임을 늘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청년 성공 도와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끔 젊은 청년들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다. 베풀어봤자 결국 자기만 손해라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다.

중국 명대의 학자 원료범(1533~1606)이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 쓴 ‘료범 사훈’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개운서, 즉 좋은 운명으로 만들어 주는 비결을 제시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는 타인에게 공덕을 많이 쌓으면 사주팔자와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장부책을 만들어 선행을 할 때마다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3천 가지 선행을 했을 때 팔자에 없었던 아들을 낳고 벼슬자리에도 오르는 경험을 했다고 적고 있다. 결국 선행이 운명을 뛰어 넘어 팔자를 고치는 비결이라는 내용이다. 성경과 불경을 비롯한 세계의 6대 종교도 공통적으로 남에게 베풀면 결국 메아리처럼 자신과 후손들에게 돌아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평생 마음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금전적인 베품보다는 육체적, 감정적 베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몸으로 봉사하거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봉사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며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업무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나는 음식점에 가서 맛이나 서비스가 좋으면 모른 채하지 않고 ‘맛이 있다’, ‘정갈하다’, ‘그릇 색깔이 예뻐서 음식이 더 맛있다’ 등의 말로 꼭 칭찬을 해준다. 그 후에는 맛있는 반찬이 더 많이 나오고, VIP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다. 결국 육체적, 감정적 베품이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가져다준 것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늘 꾸준만 하고 잘못된 지적하던 상사가 직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직원들도 신이 나지만 칭찬한 자신도 더욱 신바람이 나더라는 말도 들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내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하다보니, 일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이라는 소문이 나서 좋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민사회 운동가, 교육자, 성직자들에게 교육비를 대폭 할인해 주고 청소년과 부모들이 주니어 리더십 페스티벌 등의 행사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명대의 원료범처럼 장부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선행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모두 합치면 연간 1만 여 건은 되지 않을까 싶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행과 베품이 결국 성공의 비결임을 믿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보자. 베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AF**

공군 IN

제3기 국민조종사
“모두의 꿈을 안고 날다”

제3기 국민조종사 다이어리,
63일간의 대장정

국민조종사들의 4人 4色 이야기
* 기획특집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한
Seoul ADEX 2011 현장에 가다!

* Photo Sketch

* 포토프레임@AF

* AIR FORCE MONTHLY

길 위에서 로봇을 만났을 때

* 생각하는 그림

제3기 국민조종사

모두의 **꿈**을 안고 날다



박중현 공군참모총장이 국민조종사 박지선 씨에게 빨간 마후라를 매어주고 있다.

10월 19일(수) 13시 서울공항. 28세의 회사원 박지선 씨, 26세의 공무원 김윤주 씨, 33세의 교사 박정득 씨, 20세의 대학생 정지은 씨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T-50과 KA-1 항공기의 후방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탄 항공기는 관제타워의 지시에 따라 엄청난 가속으로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순식간에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딛고 있던 땅들이, 그들과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드나들던 건물들이, 그리고 산과 숲, 강들이 미니어처처럼 작아졌다. 그들이 숨가쁘게 살아왔던 일상들과 함께.

박지선, 김윤주 씨가 탑승한 T-50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고등훈련기. F-16 전투기급의 기동성과 함께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Fly-by-Wire), 전방 시현기(HUD : Head-Up Display) 등 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F-15K, KF-16 등 고성능전투기를 운용할 조종사 양성에 최적의 조건을 구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득, 정지은 씨가 탑승한 KA-1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공중통제공격기. 최초의 국산훈련기인 KT-1의 개량형으로 우수한 항법장치와 첨단 사격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선회능력, 연료소모율, 조종안정성 등이 뛰어난 공중통제공격기로 손꼽히고 있다.



박지선



김윤주



창공의 늑탄, 검독수리, T-50

박지선 씨와 김윤주 씨는 각각 강태현 소령과 유순웅 대위가 조종하는 T-50에 타고 있었다. 그들이 탄 편대는 얼마 되지 않아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 상공을 지나 동해안인 삼척에 이르렀다. 장대한 백두대간과 푸른 바다가 그들의 눈 아래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T-50의 제작사인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바이어로 일하고 있는 박지선 씨는 자신이 T-50을 타고 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박씨는 회사에서 T-50의 사출좌석(Ejection Seat)을 구매할 때 큰 역할을 했었다. 그 좌석에 자신이 앉아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주 씨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들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평범한 7급 공무원이던 자신이 국민조종사가 되어 보겠다고 정성껏 참가신청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네티즌투표 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화기를 붙들고 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꼭 T-50을 타라고 응원해주던 동료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잠시 후 T-50 편대는 임무공역에 진입했다. 지금까지의 수평 비행과 달리 여기서는 실제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비행과목들을 체험했다. 360도 루프를 비롯한 여러 기동들을 경험해보고 때로는 직접 조종간을 잡아보기도 했다. 순간적으로 몸무게의 8배까지 견뎌야 하는 기동들도 있었다. 항공생리 훈련 때 가속도 내성훈련을 체험하긴 했지만 이런 엄청난 신체적 부담을 견디며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이 너무도 대단해보였다.



박정득

정지은

모두의 꿈을 안고 힘차게 이륙하는 KA-1

카핏(cockpit)속에서 바라본 하늘

한편 박정득 씨와 정지은 씨가 탄 KA-1 편대는 서울공항을 이륙한 뒤 곧장 북한강과 남이섬 상공으로 날아갔다. 이들이 탄 항공기의 조종간은 각각 주종기 대위와 김운복 소령이 잡고 있었다. 천만의 인구가 북적대는 수도권이 점점 주먹 만해지더니 등 뒤에서 사라져갔다. 2천 피트 상공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이내 임무공역에 들어가 전술선회, A-Roll 등의 기동을 체험했다. 순식간에 엄청난 무게감이 몸을 눌러왔다.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사정없이 교차했다. 땅에서 올려보는 비행과 조종석 안에서의 비행이 정말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박정득 씨와 정지은 씨는 온 몸으로 배웠다.

1시간 10분 여의 꿈만 같은 비행을 마치고 4대의 항공기는 Seoul ADEX 2011 행사가 한창인 서울공항으로 복귀했다. 저 앞에 실낱처럼 보이는 활주로를 향해 항공기들은 쏘날같이 다가갔다.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고도가 낮아질수록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졌다. '딩!' 하는 착륙음, 그리고 사뭇한 터치감과 함께 항공기들은 자유로운 3차원의 세상에서 2차원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국민조종사들은 두 번 다시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은 꿈결같은 기억들과 장면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4대의 항공기는 택시웨이를 지나 주기장에 이르렀다. 공군군악대와 의장대, 수많은 취재진과 관람객들이 환호하며 국민조종사들의 비행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들도 보였다. 박지현 공군참모총장이 팡파르와 함께 도착하고, 제3기 국민조종사 임명식이 거행됐다. 박지선 씨와 유순웅 대위, 김윤주 씨와 강태현 소령, 박정득 씨와 주종기 대위, 정지은 씨와 김운복 소령은 차례로 의장대가 만들어준 교차칼 터널을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 참모총장 앞에 섰다. 대표적인 박지선 씨의 지휘로 신고식이 있었다.

“신! 고! 합니다. 민간인 박지선 외 3명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제3기 국민조종사 임명을 각각 명 받았습시다! 이에 신! 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조종사들과 공군인들을 지휘하는 참모총장이 그들에게 다가 임명장을 수여하고 빨간 마후라를 돌려 주었다. 박지선 씨는 긴장했는지 사회자의 멘트를 오해해서 빨간 마후라를 매주려고 다가온 참모총장을 두 팔로 안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조종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공군사관학교에 두 번이나 지원했건만 고배를 마셨던 정지은 씨는 자신의 목에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빨간 마후라를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이제야 지킨 것 같아 콧날이 시큰해졌다. 조종사가 되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노라 할머니 앞에서 여러 차례 다짐했던 게 그렇게도 마음에 남았던 터였다.

함께 비행했던, 너무도 멋진 임무조종사들이 꽃다발을 주고, 1기, 2기 국민조종사 선배들도 꽃다발을 주며 포용해주었다. 수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의 카메라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었던 박지선, 김윤주, 박정득, 정지은 씨는 그렇게 대한민국 공군의 제3기 국민조종사가 되었다. 그들이 가슴 가득 안고 날았던 것은 비단 자신들만의 꿈이 아니었다. 하늘을 사랑하고 비행을 동경하는 모든 국민들의 꿈을 안고 날아올랐던 것이다. **AF**

스마트폰으로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제3기 국민조종사들의 도전과 비행을 담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기 국민조종사 다이어리, 63일간의 대장정

푸른 하늘에 멋지게 수놓아진 하얀 줄무늬. 빨간 마후라를 두르고 하늘을 주름잡는 조종사. 어린 시절 그런 꿈 한 번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꿈은 세월과 함께 멀어져 가게 마련이지만,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꿈을 부여잡고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조종사 선발은 그런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대국민 이벤트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3기 국민조종사의 타이틀을 거머쥔 4명의 국민조종사가 그 주인공이 되어 창공을 날았습니다.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과정과 비행체험의 순간들을 적은 다이어리를 「공군」지 독자들과 함께 되짚어 볼까요?

8월 17일
D-63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과 비행체험에 관한 내용이 공군홍보관 운영, 항공전투시뮬레이션대회, 파워블로거 초청행사 등 ADEX 기간의 다른 홍보행사와 더불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았다. T-50과 KA-1을 각각 두 명씩 태우게 되며, 이들은 인터넷 참가신청, 인터뷰, 네티즌투표, 항공생리 및 생환 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는 골격이 잡혔다. 국민조종사 선발과 비행체험의 대장정이 공식적인 첫발을 땀 것이다. 국민조종사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질 후보들에게나 주최측에게나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는 두 달여가 될 것이다.

8월 23일
D-57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절차와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됐다. 포털사이트 DAUM과 함께 진행할 프로모션도 협의됐다. 공군회관에서 진행할 그룹인터뷰 심사위원으로 국내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를 섭외할 수 있었다. 1기와 2기 국민조종사들도 심사위원에 포함시켜 행사의 의미를 더하게 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9월 1일
D-48

“비행의 꿈을 이뤄라! 국민조종사 시즌 3!”이라는 제목으로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에 대한 보도자료가 제공됐다. 인터넷 홍보와 신문 공고를 위한 홍보 이미지와 함께, 국민조종사 선발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www.peoplepilot.kr)도 오픈됐다. 이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T-50과 KA-1 항공기의 조종석 4석이 공식 오픈된 것이다. 치열한 경쟁은 있었지만 말이다.



9월 14일
D-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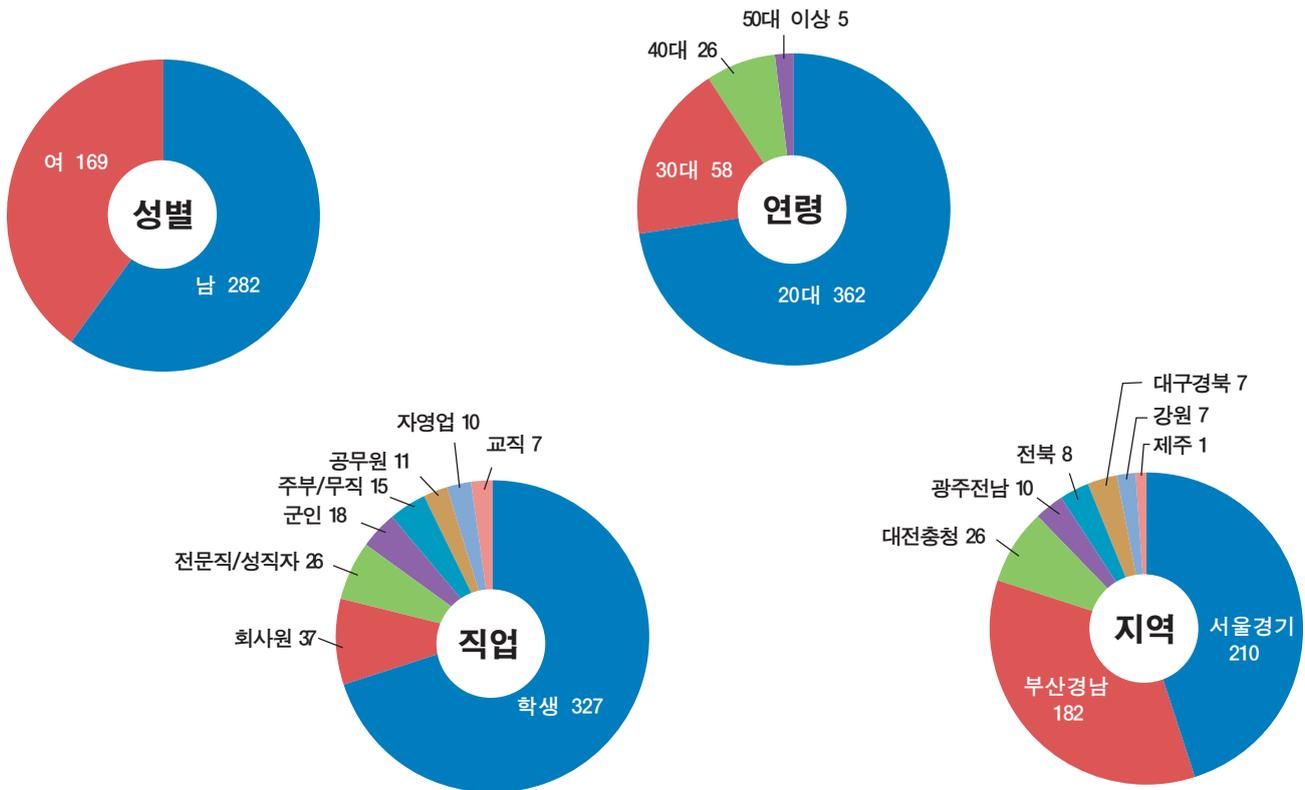
신청서 접수를 9월 18일에 마감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접수기간을 3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짧게나마 포털사이트인 NAVER, DAUM에 배너광고(9.16~9.21)도 시행했다.

9월 19일
D-30

서울의 주요 대학가에서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 국민조종사 신청을 받았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부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학종합축제한마당에서 홍보행사를 가졌다.

9월 21일
D-28

참가신청서 접수가 마감됐다. 모두 475명이 제3기 국민조종사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냈다. 그중 4명만이 국민조종사의 타이틀을 걸고 비행체험을 하게 되니 약 119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마감 즉시 6명의 심사위원이 소집되어 밤늦게까지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60명의 1차 후보를 선발됐고, 그 결과는 다음 날 정오, 국민조종사 웹페이지(www.peoplepilot.kr)를 통해 발표했다.



제3기 국민조종사 신청자(총 475명)

9월 26일
D-23

1차 후보 60명, 2차 후보 20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인터뷰가 있던 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인터뷰 장소인 공군회관에 모였다. 평가기준은 공군 핵심가치 부합성, 열정 및 애정, 희망 메시지, 신체조건/태도/매력, 향후 활동 가능성 등 모두 다섯 개 항목이었다. 후보들은 자신이 공군과 비행에 대해 얼마나 큰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민조종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어떤 이는 오행시로,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가상 뉴스리포트로, 어떤 이는 팔굽혀펴기 시범으로. 그리고 그 날 저녁, 심사위원들은 고심 끝에 2차 후보 2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10월 1일
D-18

2차 후보 20명을 최종 후보 6명으로 추려내는 네티즌 투표가 시작됐다. 기간은 6일. 방법은 공군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f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다. 20명의 후보들이 인터뷰 때 보여준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었다. 가능한 많은 참여를 위해 또 한 번의 포털사이트 광고를 실시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홍보매체는 후보 자신들일 것이다. 이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선두그룹의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우려했던 대로 40대 이상의 후보들은 20대, 30대들에게 밀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공지된 선발절차를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10월 6일
D-13

네티즌 투표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6위와 7위는 혼전을 거듭했다. 보는 이들도 손에 땀을 질 정도였으니 후보 당사자들의 심정이야 오죽했을까. 투표 창이 닫히는 24시에 드디어 최종 후보 6명이 결정됐다. 남성 2명, 여성 4명이었다. 2차 후보까지는 남성들의 숫자가 압도적이었는데 그 형국이 바뀌게 됐다.

10월 11일
D-8

최종 후보 여섯 명을 대상으로 항공생리 및 생환훈련이 계획된 날이다. 6개 방송매체에서 7개의 취재팀이 최종 선발 관문을 지나는 후보들의 분투상을 취재하기 위해 왔다. 오전에는 항공우주 의료원에서 항공생리를 했다. SD(공간정위상실) 훈련, 비상탈출 훈련, 가속도 내성 훈련, 산소장구 실습 및 저압실 훈련 등의 과목이 진행됐다. 여성 후보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훈련 특성상 가장 큰 변별력을 가지는 가속도 내성 훈련에서 1차 합격자 세 명이 모두 여성이었다. 2차 시도에서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오후에 진행된 생환훈련에서도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사람들이 가장 공포감을 느낀다는 높이인 11미터 막타워에서도 여성 후보들은 주저없이 기합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주최측도, 교관들도, 취재진도 모두 놀랐다. 이 날 제3기 국민조종사 4명이 후보들과 교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됐다. 박지선 씨, 김윤주 씨, 박정득 씨, 정지은 씨였다. 그들은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지 않고, 최종 관문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두 명의 후보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줬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천근 만근 무겁진 마찬가지였다. 공식발표는 취재매체들과 보도시점을 논의하는 와중에 14일로 늦춰졌다.

인터뷰 시 심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최영훈 대령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백용주 중령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교육훈련부장



이진욱 중령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조종사



이소연 박사
한국 최초 우주인



조성욱 교수
제1기 국민조종사



김민정 대표
제2기 국민조종사



10월 19일
D-day

인생 최고의 순간을 앞두고 잠들이나 제대로 잤을까?
기대감과 긴장감, 그리고 벅차오른 가슴으로 국민조종사들은 이 날의 숨가쁜 일정을 시작했다.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 07:00 숙소 출발. 차 안에서 일정 안내, 임명식 행사 안내, 신고 연습 등을 실시
- 07:30 서울공항 도착, 장교식당에서 재빠른 아침식사
- 08:00 ADEX 비행통제팀이 주관하는 전체브리핑 참석
- 08:30 비행대대 도착. 비행근육관 건강진단과 항공생리 교육
- 09:00 헬멧, G-슈트 등 항공장구 피팅
- 09:30 임무조종사들과 비행브리핑 시작. KA-1 편조는 시뮬레이터 탑승까지
- 11:00 임무조종사들과 함께 점심식사
- 12:00 탑승할 항공기가 있는 주기장으로 이동. 비행 전 점검. 취재진들을 위한 포토타임
- 13:00 이륙.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비행. 임무공역에 진입해 기본 비행과목 체험
- 14:10 착륙. 수많은 축하객들과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장으로 진입
- 14:40 박중헌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제3기 국민조종사 임명식 거행
- 15:00 축하객들과 함께 기념촬영. 1, 2기 국민조종사들이 주관한 세레모니 참석
- 16:00 비행대대에 복귀해 카메라 인터뷰. 조종복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10월 21일
D+2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과정에서 2차 후보까지 되어 네티즌투표에 임했던 20명을 위해 C-130 수송기 비행체험이 있었다. 국민조종사 모임인 제트윙스(cafe.naver.com /jetwings), 창공클럽, 로카피스 등 공군애호단체의 간부들도 함께 했다. 비록 제3기 국민조종사 4명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공군의 중요한 기동전력인 C-130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 하늘을 향한 열정, 공군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은 이들 모두는 이미 대한민국 공군의 국민조종사다. AF



대한민국 공군이 주관하는 국민조종사 선발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1기(2007년) 4명, 2기(2009년) 6명, 3기(2011년) 4명의 국민조종사가 탄생해 자랑스런 국산항공기 T-50(또는 KA-1) 비행체험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비행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2013년을 기다리십시오.

제4기 국민조종사의 타이틀은 바로 **당신**의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조종사들의 4人 4色 이야기

Born to Fly!



제3기 국민조종사
박지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번에 국민조종사 3기로 발탁되면서, 나는 이 말을 믿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사실상 T-50과 KT-1을 제조하는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다니는 직원으로서 사람들은 한번은 탈 기회가 있지 않느냐고 묻지만, 사실 눈앞에 있는 떡을 바라만 볼 뿐이지 정작 먹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가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국민조종사에 도전하게 된 건 회사 동기의 권유 덕분이었다. 그 친구는 나와 함께 2001년도 공군사관학교 진학 실패의 쓴 맛을 경험하고 항공대에 나란히 입학한 학교 동기이자, 지금 다니고 있는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도 함께 입사한 회사 동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는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고 나는 합격했다. 친구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했다.

2차 관문인 면접은 공군회관에서 치러졌다. 면접에 강한 편이 아니라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때침 면접관님의 한 마디. “이번 조에서는 항공기를 탑승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것 같네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항공대를 갔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입사해서 계속 하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나인데… 이 간절함을 어떻게 전달해야하나?** 걱정부터 앞섰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작은 눈을 부릅뜨고 내가 반드시 타야 한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다행히도 3차 관문 20명에 뽑히게 됐다.

처음엔 쉽게 생각하고 도전한 국민조종사 3기. 하지만 3차 관문인 네티즌 투표를 겪으면서 몸살까지 났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초, 중, 고, 대학 동문들의 홈페이지 및 그 지인들까지 투표를 부탁했다. 정말 간절할 마음이었다.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은 ‘(지선이가) 웬만해서는 잘 부탁하지 않는 성격인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닐까?’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뽑힌 최종 6인. 이제 마지막 관문인 항공생리 훈련만이 남았다. 특히 제일 어렵다는 중력가속도 테스트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T-50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 어렵다는 가속도 훈련에서 1차에 합격했다. 믿기지 않았다. 가속도 훈련장비에 오르기 직전에 어떤 분이 “간절히 원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었다. 이 말이 가슴에 남았는지 중간에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다. 일상에서의 20초는 정말 찰나지만, 6G를 20초간 버틴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항공생리훈련 후, 아쉽게도 2명이 탈락됐다. 함께 꿈을 흘리면서 힘든 훈련을 받은 후라 그런지 하루만 같이 보냈을 뿐인데도 깊은 동기가 생겼나보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4기 국민조종사에는 꼭 그 친구들이 선발됐으면 좋겠다.

드디어 T-50 탑승일. 조종복을 입고, 장구를 피팅한 후 비행 전 브리핑을 했다. 이내 이륙 시간이 되어 꿈에 그리던 T-50에 탑승했다. 조종석에 앉은 순간 사정 없이 벽차오르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우리 나라가 만드는 항공기가 이렇게 능률하고 멋지다니! T-50이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기임을 내 눈과 내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순간,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다. 집들과 산들이 점점 미니어처로 변하고 항공기가 저 멀리 수평선으로 점점 다가갈 때에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날고 있다! 내가 정말 날고 있어!!” 삼척의 아름다운 예메랄드빛 바다는 내 눈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마저 뒤흔들었다.

제3기 국민조종사에 도전하면서 나는 내 꿈을 더욱 비상시킬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이 보다 강해지고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회사(한국항공우주산업)와 내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았다.

대학생 때 “I believe I can fly”란 노래를 즐겨 불렀다. 그 때마다 주변 친구들은 “No. You can't! It's too late!”라고 면박을 주었다. 하지만 간절히 믿으니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제3기 국민조종사로 발탁되면서 나는 이 말을 증명해 보였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꿈을 키워가 보길 바란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꿈은 이루어진다. ★**”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함께 비상할 수 있기를 - Let's fly together!

여전사가 된 7급 공무원

대학 졸업 후, 늘 바쁜 일상의 연속이었던 내게 '제3기 국민조종사' 모집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황금 같은 20대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리라 생각하며, 세계 최고높이인 233미터 마카오타워에서의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카트라이더까지... 매번 새로운 경험으로 호기심과 모험심을 충족시켜 왔던 차에 '국민조종사'는 정말 운명과도 같은 도전이었다.

그러나 '국민조종사'의 길은 결코 쉽지않은 않았다. 네 차례의 걸친 관문과 119 대 1이란 경쟁률은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다.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인터뷰할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내게 "근력이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소, 중, 고 시절, 체격장을 1등급으로 통과했으며, 안해본 운동은 있어도 못하는 운동은 없습니다!"라고 당돌하게 답해 면접관의 말을 막히게 했는데, 어디서 그런 기지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다행히도 2차 후보 20명 안에 들어, 네티즌투표까지 진출하게 됐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top 6 안에 들어야만 했다.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860표 이상을 얻어 4위로 통과했다. 다음은 항공생리와 생환훈련이었다. 여기서는 중력의 6배를 견뎌야 하는 G-test와 저압실 테스트가 가장 난관이었다. G-test에 먼저 도전했던 후보들이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초인같은' 정신력으로 20초를 버티는 데 성공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게 투표해주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 같다.

2011년 10월 19일, '하늘의 여전사'가 되다

'오늘은 내 평생 기억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다. ADEX 행사 전 임무조종사들과 함께 전체 브리핑에 참석하는 것이 첫 번째 스케줄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심한 두통과 함께 컨디션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실제 조종사들도 당일 컨디션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비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내 비행에 있어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칠까 싶어 걱정이 됐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종복으로 갈아입자마자 점차 몸과 맘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이륙시간이 됐다. 우려와는 달리 편안한 느낌으로 비행이 시작되었다. 속력은 점점 올라가 시속 800km정도까지 도달했지만, 속도감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T-50은 평창을 지나 삼척 인근의 푸른 바다 위에서 멋진 기동을 선보였다. 나란히 움직이는 두 대의 T-50은 땅 위에서 볼 때도 멋진 장관이었을 것 같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가을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내게 잠시나마 평온함을 안겨 주었다. 붉게 채색된 단풍나무들과 햇빛에 반사되어 있는 물줄기 모습들, 아름다운 몽게구름과 맑은 하늘은 비행 그 자체와 더불어 내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잠시 후 항공기는 임무 구역에 진입했다. 조종사께서 잠시나마 조종간을 넘겨주셨다. 지상에서 연습한 것과 다르게, 살짝만 움직여도 기체의 움직임이 매우 커서 깜짝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점차 움직임의 정도를 파악한 후, G를 느끼는 기동까지 시도해 보았다. 장교양성과정을 마치고 길고 고된 비행훈련을 마쳐야만 허락된다는 T-50의 조종간을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봤다는 건 내게 있어 엄청난 행운이었다.

꿈같은 비행이 끝난 후, 참모총장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조종사' 임명장을 건네주시며 빨간마후라를 매주셨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영화 '탑건'의 주인공이 된 마냥, 무한한 환희와 감동을 느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내게 '국민조종사'라는 기회를 주셨던 공군관계자 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선배님, 후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제 제3기 국민조종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과 공군 홍보대사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3기 국민조종사
김윤주

제자들에게 전해줄 소중한 경험



제3기 국민조종사
박정득

개학하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도중, 우연찮게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공고를 보게 됐다. 2007년에는 소식을 접하고도 대학원에 등록한 첫 학기라 다음으로 미뤘고, 2009년에는 결혼 때문에 정신없이 놓쳐버렸던 기회였다.

3기 선발 공고를 보고 지체 없이 신청서를 쓰기 시작했다. 구구절절하게 쓰지 말고 핵심만 전달하자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리고는 중간고사 기간, 시험감독과 채점으로 시달릴 때 한통의 전화가 왔다. 합격했다. 나도 모르게 “야오!” 하고 소리쳤더니 주변 선생님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본다. 2차 관문인 인터뷰 날. 가족들과 함께 소풍가는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 밖에 거의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에서 두 번째 조에 배정돼 참을 기다린 끝에야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 지원이유를 계속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면접장에 들어서니 뇌의 사고기능이 정지했는지 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고서야 노래까지 불렀던 걸 알게 됐다.

인터뷰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마음 속으로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면접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환호성을 지르는 통에 또 주변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다음 고개는 네티즌 투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서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네티즌 투표에 임하면서 나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주변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아내의 헌신적 도움과 친지의 도움 그리고 학교 제자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800표가 넘는 득표로 최종후보 6인 안에 들 수 있었다.

10월 11일, 최종 관문인 항공생리훈련이 있는 날이다. 가장 두려워했던 G-test를 앞두고 연신 식은땀을 흘렸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내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항공우주의료원 의료진들이 훈련을 만류했다. 전혀 문제없다고 호기 넘치게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1차 탈락. 조종간을 당김과 동시에 두어 번 ‘익! 익!’ 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기절하고 만 것이다. 점심은 돌을 씹는 기분이어서 몇 숟갈 들지도 못하고 바로 2차 도전에 들어갔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다. 그러나 점점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들을, 학생들을 떠올리며 버텼다. 다시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4차 관문을 모두 소화하고 나니 결과는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격려해주고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게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았으니까.

최종 발표 날, 나보다도 학생들이 먼저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알아본다. 결과는 최종 선발! 나만큼이나 좋아하며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 제자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도전하라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교사가 된 것 같아 너무나도 기뻐다.**

수많은 축하 속에 드디어 19일이 되었다. Seoul ADEX 2011 행사장에서 ‘국민조종사’라는 타이틀로 공군의 KA-1 공중통제공격기에 탑승하게 됐다. 비행을 준비하는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움직임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보였고, 무한한 신뢰의 마음이 우러났다. 잠시 후 내가 탄 KA-1 항공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내달렸다. 하늘을 마음껏 나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항공기는 순식간에 양수리를 지나 남이섬과 춘천에 이르렀다. 북한강을 따라 비행하며 내려 본 우리 국토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특히 아내와 함께 놀러갔던 반달 모양의 남이섬과 주변의 울긋불긋한 단풍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아름다운 광경으로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전방석 주종기 대위님의 배려로 여러 가지 기동을 체험해보았다. 특히 민간인인 내게 잠시나마 조종간을 잡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은 너무나도 감사드릴 일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느낌이 너무 생생하여 가슴이 떨린다. 1시간 여의 비행을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항공기에서 내렸다. 그 누구보다 아내의 얼굴이 너무도 반갑고 고마웠다.

중학교 때 스승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른다.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사는 진정한 주인공이다.’ 나는 이번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과정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노력이야말로 인생을 옳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소중한 경험들을 이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방위를 위해 노력하며 봉사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줄필을 맺고자 한다.

☪ 내 생애 가장 빛났던 순간

제3기 국민조종사 최종 관문 통과 후, 비행까지 내게 남겨진 시간은 대략 1주일이었다. 내가 국민조종사라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지만, 학교정문에 걸린 국민조종사 최종합격 축하문구 현수막이 그것을 실감케 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비행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지만 책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다. '저기 저 높은 곳에서 보는 이 땅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비행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던 일주일이었다.

10월 19일, 꿈에 그리던 그날이 찾아왔다. 국민조종사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떠나질 않았다. 조종복으로 갈아입은 후, 비행을 함께할 임무조종사들과 함께 브리핑을 시작했다. 조종사께서는 당일 수행할 여러 비행과목을 항공기 모형을 사용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그 모형처럼 날아다닐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브리핑을 마친 후, KA-1 시뮬레이터를 탑승할 기회를 얻었다. 어릴 때부터 각종 게임에 능한 나였지만 항공기 조종만큼은 쉽지 않았다. 조종간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항공기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로 인해 소중한 비행기 수 대가 폭발했다. 실제 비행이었으면 나는 목숨이 열 개라도 부족했을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KA-1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첫 사랑과의 만남이 이처럼 설렘까? 안정성이 뛰어나고, 비행할 때 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과 가장 비슷하다는 KA-1. 프로펠러를 돌리면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았다. 생각보다 크고 날렵한 형태의 비행기를 보고 탄성이 절로 나왔다. KA-1도 나와 함께할 그 짜릿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했다.

조종석에 오르고 각퓰이 달렸다. 항공기가 유도로를 지나 활주로 끝에 정대했다. 갑자기 엄청난 엔진소리가 들려왔다. 귀에서 이륙을 준비하는 카운트 소리가 들려왔다. 숫자가 내려갈수록 나의 심장 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KA-1은 순간 엄청난 속도로 활주로를 달렸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나는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하늘에서 바라 본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가을의 깊이를 알리는 울긋불긋한 산과 맑고 푸른 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긴장감으로 꽉 막혀있었던 속이 '뽕' 하고 뚫리는 것 같았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을 때 기동 시작을 알리는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의 준비를 마치자 KA-1은 좌우로 빙글 빙글 선회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땅과 하늘이 뒤바뀌어 있었다. 여러 기동을

하며 조종사와 나 그리고 항공기는 점점 하나가 되고 있었다.

기동할 때 다소간의 G가 느껴졌는데, G-test 훈련 덕분에 인지 버틸 만 했다. 약간 메스껍기도 했지만 비행의 짜릿함에 비할 바 안 됐다. 저 멀리 아래의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평온해 보였다. 갑자기 항공기를 직접 조종해보라는 전방석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종간을 움직여 직접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런데 시뮬레이터 탑승 때 사정 없이 폭발하던 항공기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두려움 때문에 아주 조금씩만 조종간을 움직여보았다. 미세한 움직임에도 KA-1은 반응하고 있었다.

계속 가속도를 건디며 기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금방 피곤했다. 뒤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그 가속도를 건디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조종사는 비행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 지쳐서는 안 된다. 지치더라도 자신과 비행기 그리고 조국을 위해 견뎌야 했다. 조종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착륙 후 행사장으로 진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행을 축하해 주고 있었다.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가족들이었다. 헬멧을 쓰고 있는 나를 먼저 가족들이 알아봤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내 움직임만으로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다. 엄마는 우느라 얼굴이 부어 있었다. 외할머니도 울고 계셨다.

"한머니! 지은이가 나중에 꼭 조종사돼서 비행기 타는 거 보여줄게. 약속!"

외할머니와 했던 그 약속을 6년 만에 지킬 수 있게 됐다. 작년에 공군사관학교 입시에서 떨어지고나서 눈물을 삼키며 외할머니께 전화했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 이후 파일럿의 꿈은 내 가슴 속 깊은 구석에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그 꿈이 오늘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날 경험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국민조종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성장했고, 내 꿈도 성장했다. 국민조종사로서의 꿈은 이루었지만 진짜 내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높은 하늘에서 더 크고 높은 꿈을 꾸었다. 그리고 제3기 국민조종사에 도전했던 그 힘찬 발걸음으로 다음의 꿈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AF**



제3기 국민조종사
정지은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한 Seoul ADEX 2011 현장을 가다!

전 세계 최첨단 항공기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1)' 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Public Day 기간인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ADEX 행사장에 방문한 관객 분들의 즐거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 행사장내 모든 카메라들이 블랙이글스의 공중전투 시범비행을 따라 움직인다



▲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공군홍보관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1**



◀ 오늘은 나도 조종사!



▲ 뚝뚝뚝한 최연소 관람객?!



▲ 특백(?) 나온 1학년 사관생도들



▲ 공군 조종사와 함께하는 항공전투시뮬레이션 대회



▲ 조종사 누나!
나 어지러워요 ㅠ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1



Seoul ADEX 2011 개막행사 참가

참모총장은 10월 18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Seoul ADEX 2011>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인사와 역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원로와 방위산업체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및 외국대표단 접견

개막식 이후 참모총장은 게리 노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나 T-50을 활용한 선진비행교육체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다수의 외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군사외교활동을 펼쳤다.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참모총장은 10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17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항공우주산업 발전방향은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건설>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며, “우리 공군은 한반도 안보위협을 사전에 감소시키고 억제전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항공우주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항공우주력이 확보되면 입체적인 공군작전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해상군과의 합동성 제고와 전력승수를 배가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군참모총장 회의

참모총장은 10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공군참모총장 회의 2011>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공군은 다양한 안보위협과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군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의 긴밀한 군수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정예 공군력 건설을 위한 세계 각국의 비행교육 훈련체계와 군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공군을 향한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R FORCE MONTHLY

2011. 11. NEWS



2011년 전투기 부문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개최 올해의 Top Gun은 바로 나!

작전사령부는 F-4E, F-5E/F, F-16, KF-16, F-15K 등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가 총동원된 가운데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임무공역 및 공군 전술사격장에서 '2011년 전투기 부문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를 개최했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지난 1960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 52회째를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군 최대 규모의 공중사격대회로 임무성격에 따라 전투기와 비전투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정교한 사격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적의 공대공·지대공 위협을 피해 작전에 침투하여 적기와 교전을 하고, 적의 갱도진지 및 지휘부에 정밀무장을 투하하는 등 탑재장비와 무장을 활용한 실전적인 전술운용능력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그 밖에 각 분야별 조종사와 동승조종사의 팀워크, 정비·무장요원의 지원능력 등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단순한 사격대회가 아닌 최고의 영공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실질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방공포병사령부 제38회 유도탄 사격대회 개최
포착한 적기는 반드시 격추한다!**



방공포대와 비행단 및 관제부대 방공포병 요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실사격 및 비사격으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대회기간 동안 호크 6개 포대와 신궁 및 미스트랄 22개 부대가 실제 사격을 통해 각각의 사격 기량을 선보였다.

방공포병사령부 훈련과장 이영권 중령은 “이번 사격훈련은 유도무기 운용 요원의 전반적인 사격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실제사격에 대한 방공포병 장병들의 확고한 자신감을 배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포착한 적기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격추하는 실천적 전투역량을 배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방공포병부대의 전술기량을 평가하고 실전투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1년 유도탄 사격대회'가 10월 20일 개최됐다.

이 대회는 현재 중거리 유도탄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실시격하는 연중최대훈련으로 1966년 제1회 대회 이래 올해로 38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회, 교육시설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영남대학교와 세종대학교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합의를 체결에 따라 우선 세종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20명을 선발해 4년간 양성하게 되며, 공군은 이들 학생 전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미 공군, Max Thunder 훈련 실시
하나된 한·미 연합공군,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다!**

작전사령부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미 공군 간 대규모 연합 항공전역훈련인 Max Thunder 훈련을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에서 실시했다.

매년 2회, 봄과 가을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Max Thunder 훈련은 한·미 공군 간 연합작전능력의 향상과 대량공격편대군의 임무수행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다. 지난 2008년 미 공군의 RED FLAG 훈련을 벤치마킹해 실시했으며, 올해로 4년째다. 전쟁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 공군이 주도하여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130여 명의 조종사를 비롯해 정비, 무장, 수송, 통역 등의 임무를 수행할 250여 명의 지상요원이 참가해 전시 연합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했다. 우리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하여 F-4E, F-5E/F, KF-16, CN-235, HH-32, HH-60 등 40여 대의 항공기와 함께 F-16CM, A-10, AWACS 등 20여 대의 미 공군 항공기, 총 550여 중 2,600여 점의 장비와 물자 등 대규모 전력 이 동원됐다.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조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종장학생 모집 및 군사학 발전에 관한 합의서'를 10월 10일(월) 영남대학교, 10월 17일(월) 세종대학교와 각각 체결했다.

그간 조종장학생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3학년 재학생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왔지만, 공군은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군 장교로서의 리더십, 가치관을 지닌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종장학생 지정모집 대학을 운영하기로 하고 총 16개 신청학교 중 교과목 운영계획, 교수진 확보현황, 우수학생 유치

**영남대·세종대와 조종장학생 지정모집 합의서 체결
우수 조종인력 확보 軍·學이 손잡았다!**



그간 조종장학생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3학년 재학생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왔지만, 공군은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군 장교로서의 리더십, 가치관을 지닌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종장학생 지정모집 대학을 운영하기로 하고 총 16개 신청학교 중 교과목 운영계획, 교수진 확보현황, 우수학생 유치

공군사관학교 생도전대, 청주시의장 표창 수상 공사생도들의 사랑나눔 이야기



공군사관학교 생도전대가 9월 29일, 흥덕구청에서 열린 충북연탄은행 2011년도 재개식에서 청주시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표창은 사관생도 대표로 재개식에 참석한 4학년 전민규 생도가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3년 동안 충북연탄은행 생도들이 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사관과 연계하여 불우가정에 사랑의 연탄기부 및 배달을 해온 공로와 주말외출 시간을 쪼개어 자발적 생도들이 군사출련과 절제된 생활 속에서도 여가시간과 주말외출 시간을 쪼개어 자발적인 봉사를 해왔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공군사관학교 3학년 남용은 생도는 “활동하는 내내 무거운 연탄을 나르다는 생각보다 사랑을 배달한다는 생각이 컸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연탄배달 이외에도 충북재활원, 청주노인전문병원, 늘푸른아동원, 예심하우스 등 청주·청원지역 12개 봉사기관에 방문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번기와 김장철에는 부족한 인력을 돕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이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제19회 공군참모총장배 항공전투시뮬레이션 대회 개최 대한민국 사이버 탑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탑건을 가리는 제19회 공군참모총장배 항공전투시뮬레이션 대회가 10월 23일 서울 ADEX 2011 행사장(서울공향)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이필욱 씨, 김정진 씨가 각각 F-16 공대지, F-15K 공대공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 신설된 온라인

인 비행슈팅 종목에서는 김태규, 김무경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F-16 공대지 부문은 기지에서 기록하여 주어진 표적을 파괴하고 착륙시까지 걸린 시간을 겨루는 종목이며, F-15K 공대공 부문은 F-15K 2대로 편대를 이루어 상대팀과 공중전을 벌이는 단판제 토너먼트(32강) 방식이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실시된 온라인 비행슈팅 부문은 초보 게이머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비행슈팅 게임 'DEADSIX'를 경기 종목으로 선정, 2대가 편대를 이루어 상대팀과의 공중전을 통해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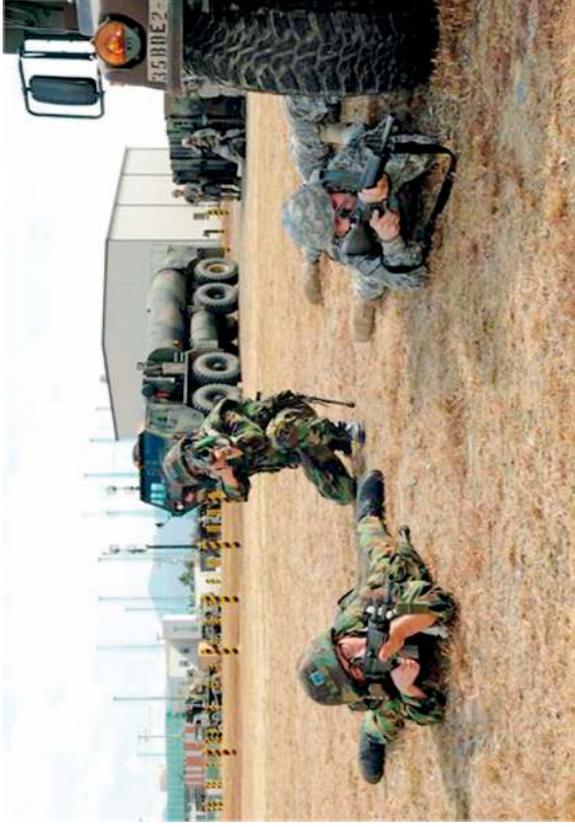
공군,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인간공학적 비행복 디자인'으로 최우수 디자인 선정



공군은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재)공공디자인지원재단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0-2011 국제공공디자인 대상(International Public Design Award) 인간공학분야에서 영예의 대상(Grand Prix)을 수상했다.

국제공공디자인 대상²⁾은 공공디자인지원재단(IPDF, International Public Design Foundation)이 주최하고 25개국 30개 기관협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공군은 공공부분의 '인간공학분야'에 '인간공학적 비행복 디자인'을 출품해 대상을 받게 되었다. 이 디자인은 공군이 주관하고 공군사관학교, 경복대, 포항공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기존 비행복의 패턴과 치수체계를 한국 조종사 신체특성에 맞도록 새롭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조종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6개 항목(키, 가슴둘레, 다리길이, 팔길이 등)에 걸친 체형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치수들 중 불필요한 치수를 제거하고 신규 치수를 추가해 개선된 비행복 치수체계를 개발했으며, 수용률(자신의 몸과 옷이 일치하는 비율)을 96%로 증가시켰다. 기존의 비행복 수용률이 8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개선된 비행복은 올해 상반기부터 조종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1) 전투기 후미 6시 방향을 의미하는 공중전 용어로 국내 업체 'GPAX'에서 개발, 서비스 중인 온라인 비행슈팅 게임
2)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PDA(Public Design Award, 공공기관 대상), GPD(Good Public Design, 기업 대상) 국제인증이 부여된다.



5전비, 한·미 연합 기지방호 훈련 실시

혈맹(血盟)은 우리가 지킨다!

제5전술공수비행단(이하 5전비)은 10월 19일, 기지 내 미(美) 패트리엇 전개지역에서 한·미 연합 기동타격대 출동 훈련 및 기지방호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 패트리엇 부대의 5전비 전개 기간 중 한·미 연합 기지방호 전력의 통신 능력을 점검하고, 유사시 적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5전비 작전 요원 37명과 장갑차·무장순찰차 각 4대, 미 패트리엇 부대원 91명과 무장 함비 3대 등의 전력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5전비는 상황 발생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지휘관 통제하에 한·미 연합 기지방호전력의 통신 훈련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상황전파체계를 숙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훈련의 현장지휘관 임무를 수행한 5전비 기지작전과장 최정모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공무기체계 보호를 위한 한·미 기지방호전력의 상황전파체계를 다듬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미 연합 전력의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1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세미나 개최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및 핵심기술 개발방안 적극 모색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0월 19일, 서울 ADEX 2011 행사장 내 세미나 룸에서 '2011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세미나'는 항공우주 산업 분야



2011 세미나 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공군 연구분석단장 진호영 준장은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 및 국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금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미래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발전과 핵심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1 공군사관학교 '사랑의 헌혈' 실시 사랑을 위한 1초의 핑그림!



실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헌혈은 이틀 동안, 300여 명의 장병과 군무원, 사관생도 등이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공군사관학교 박수한 일병은 "헌혈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 '사랑의 헌혈'을 실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의 발전추세 및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軍·産·學·研 간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연구개발 소요 창출 및 무기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1'과 연계, '적극적 억제 전략 구현을 위한 항공우주력 건설방향'을 주제로 서울 ADEX

공군사관학교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장병과 군무원, 사관생도들이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공군사관학교는 범국민적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혈액부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대군 신뢰감을 증진하고 병상에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참사랑을

길 위에서 **로봇**을 만났을 때



만약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로봇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로봇을 도와주겠습니까?
2009년 10월, 미국 뉴욕대학교 학생인 케이시 킨저(Kacie Kinzer)는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재미있는 실험을 꾸몄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트윈봇(Tweenbot)이라는 작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골판지로 둘러싸인 몸통에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 귀여운 로봇은 머리 위에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목적지가 적힌 긴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트윈봇은 오로지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 스스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킨저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의 북동쪽 입구에 트윈봇을 방치해 놓고, 사람들이 이 로봇을 깃발에 적힌 행선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지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목적지는 출발지와 정반대 방향인 공원의 남서쪽 입구였습니다. 크고 작은 흙과 장애물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구불구불하고 험난한 먼 길을 트윈봇은 과연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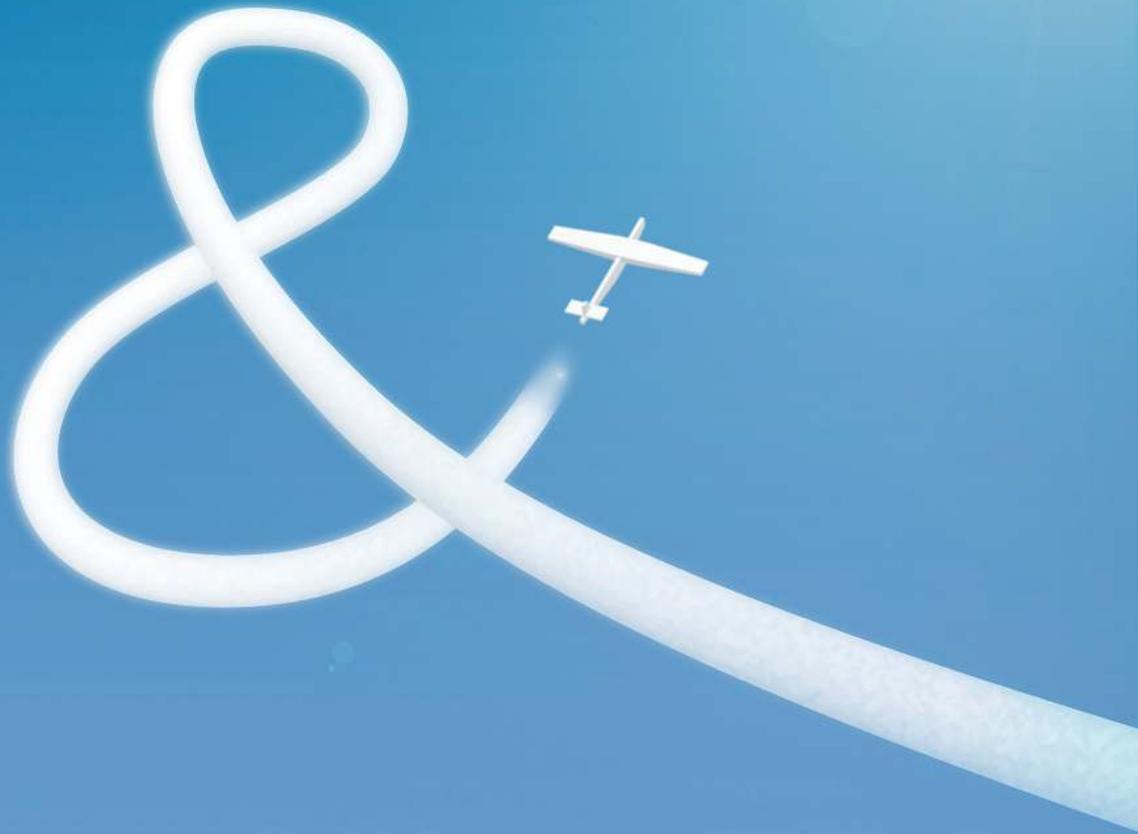


킨저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트윈봇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밟혀서 망가지거나, 무관심 속에 외면당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킨저의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민들은 트윈봇이 가는 곳곳마다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 것입니다. 그들은 트윈봇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면 방향을 바꿔 똑바로 가게 해 주었습니다. 흙에 빠지거나 장애물에 걸려 멈춰 섰을 때에는 직접 나서 그를 꺼내 주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행인들은 트윈봇이 차도로 가려고 하자 마치 사람을 대하듯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찾길이라 위험하거든.”이라고 말하며 타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29명의 선량한 시민들의 도움에 힘입어 트윈봇은 출발한 지 42분 만에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Culture

36.5

장화신은 고양이

* Hollywood English

고양이를 부탁해

* Art in Everyday

자유를 향한 유쾌한 에피소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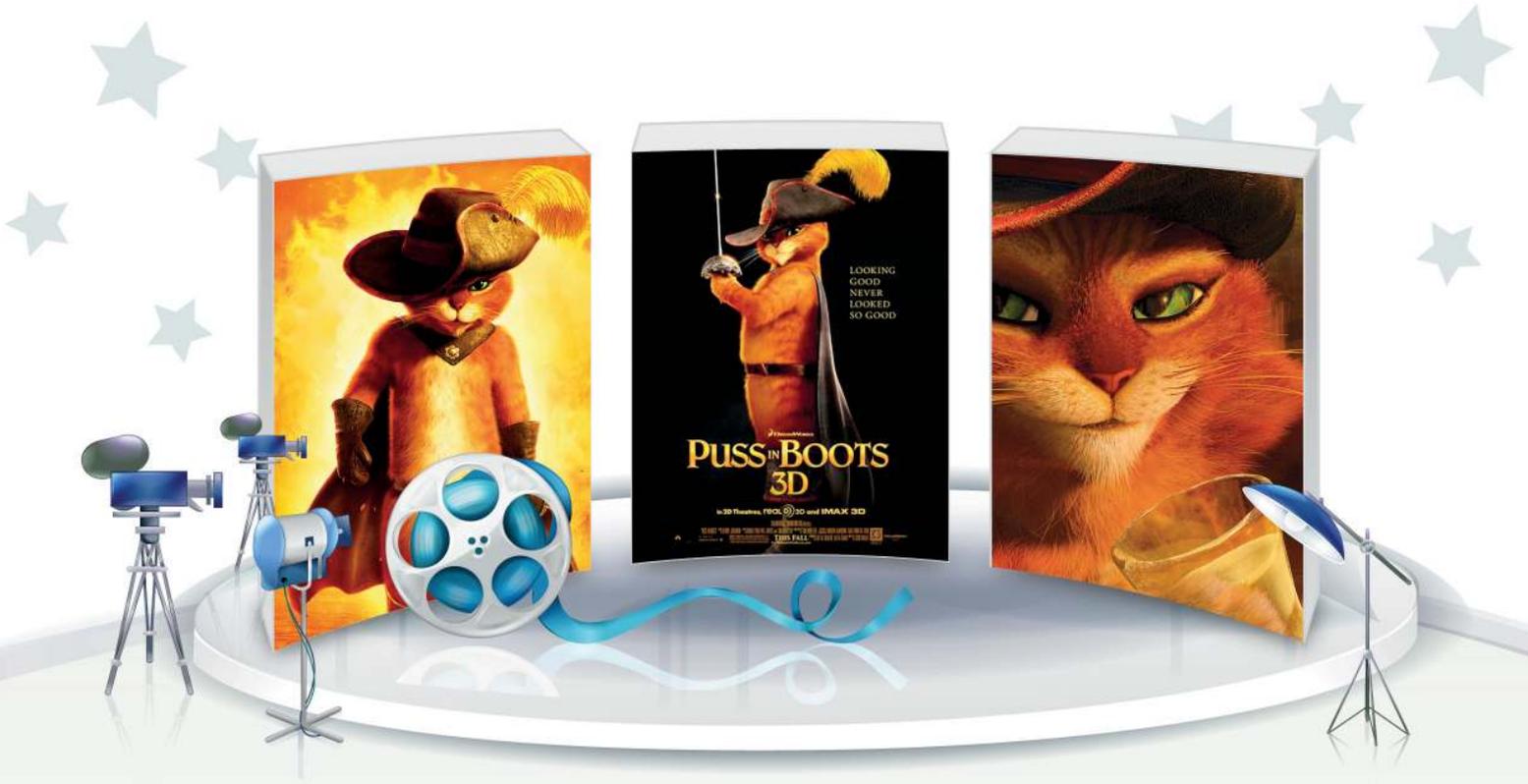
* 인생은 아름다워

위로가 필요해

* Air-Supply

11월의 문화행사

* Preview



장화신은 고양이 PUSS In BOOTS

장화신은 고양이의 독립선언

<슈렉 Shrek> 시리즈의 최종편인 <슈렉 포에버>에는 이런 장면이 있지요. 주인공 '슈렉'이 <슈렉> 그림책을 다 읽고 밀쳐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책 옆에 살짝 노출되는 책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바로 '장화신은 고양이(Puss in Boots)'입니다. <슈렉> 2편부터 등장해서 '허세작렬'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은 그 캐릭터이지요. <슈렉> 시리즈와 <쿵푸 팬더> 시리즈를 만든 드림웍스가 2011년 겨울에 야심차게 내놓는 새 장편 3D 애니메이션의 제목도 '장화신은 고양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뽕글뽕글' 눈망울을 가진 고양이가 '슈렉'의 겁나 먼 왕국(Far, Far Away Kingdom)에서 활약한다는 스토리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장화신은 고양이'가 당당하게 독립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슈렉'을 처음

만나기 전 대체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줄 애니메이션이 <장화신은 고양이>입니다.

키티 말랑손과 험프리 알렉산더 덤프티

'악마 고양이(Devil Cat)', '털투성이 연애박사(The Fury Lover)', '드라큘라 고양이(Dracula Cat)', '호탕발랄 양다리(Frisky Two-Times)' 라는 별명을 가진 고양이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무법자이자 도망자인 그는 '푸스(Puss)'라는 애칭을 가진 '장화신은 고양이'입니다. '푸스'의 목소리 연기자는 <마스크 오브 조로>의 안토니오 반데라스이군요. 참 멋집니다. 그의 상대역은 '키티 말랑손(Kitty Softpaws)'입니다. 손톱, 발톱이 없어서 붙여진 별명이지요. 목소리 연기



자는 천재 화가 프리다를 열연한 <프리다>의 셀마 헤이엑입니다. 참 예쁩니다. '푸스'의 '옆차기' 동지, 즉 sidekick은 달걀 캐릭터인 '험프티 알렉산더 덤프티(Humpty Dumpty)'입니다. sidekick은 '곁에서 주인공을 돕는 조연'이란 뜻입니다.

“홀로는 없다, 영원히 함께!”

아기 고양이 '푸스'는 아기 달걀 '험프티'를 고아원에서 만나 친구가 됩니다. 둘은 맹세합니다. 아니, '험프티'가 먼저 손을 내밀어 맹세를 청합니다. 서로 형제가 되자고...! 아기 달걀이 이렇게 외치는군요. “홀로는 없다, 영원히 함께(Never alone, always together)!” 장면이 바뀌면 성큼 성장한 '푸스'와 '험프티'가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고아원을 도망치자고...! “Humpty's mind is full of imagination and invention.” 이 대사처럼 '험프티'는 머릿속이 온통 상상력과 발명으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그가 그걸 나쁜 쪽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 충격적이게도 '험프티'는 은행을 털니다. 전후사정도 모른 채 '험프티'를 따라 나갔다가 공범자로 몰린 '푸스'는 큰 배신감을 느끼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푸스'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마법의 콩을 훔쳐라!

어린 시절의 플래시백 장면들이 끝난 후 검객으로 분한 '푸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누군가가 목고 있는 호텔에 침투합니다. '잭'과 '질'인데요, 이들 부부는 대도입니다. 그렇다면 '푸스'는 왜 대도의 잠자리에 침투한 걸까요? 보물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전설적인 콩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란 '마법의 콩(Magic Beans)'입니다. 마법의 콩이면 마법을 부린다는 뜻일 텐데, 과연 '푸스'는 이 콩을 훔쳐 무엇을 도모하려는 걸까요? 혹시 콩을 심으면 콩줄기가 하늘 높이 자라서 천공의 성에 도착하는 건 아닐지...?! 그 천공의 성에 놀라자빠질 보물이 있는 건 아닐지...?! 맞습니다. 구름 위에 존재하는 천공의 성은 '거인의 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곳에 황금알(Golden Eggs)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거대한 공포'라는 별명을 가진 거인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모하게 도전했다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아무튼 '푸스'는 황금알을 훔치기

에 앞서 마법의 콩을 훔치려던 것인데 가까스로 성공하려는 찰나 느닷없이 '푸스'의 앞에 '복면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 복면 고양이는 누구일까요? '푸스'가 그의 정체를 확인하곤 기절초풍하려는 순간 그의 앞에 옛 친구가 나타납니다. 바로 '험프티 알렉산더 덤프티'입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왠지 사악해보입니다.

'험프티'는 '푸스'를 꼬득입니다. 마법의 콩을 훔쳐서 떳떳거리며 살자고...! 고아원이 있는 고향에 돌아가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자고...! '험프티'를 믿어선 안 되는데도 사랑발림에 속은 '푸스'는 마법의 콩을 훔치는데 성공합니다. 거대한 체구의 '잭'과 '질'의 추격이 시작되겠군요. 고양이는 목숨이 열 개라지만 이제 '푸스'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가려드립니다.

총 제작기간 7년의 블록버스터

<장화신은 고양이> 프로젝트가 잉태된 건 2004년입니다. <슈렉 2>가 개봉되던 해이지요. 제작사는 최초엔 <장화신은 고양이> 프로젝트를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만든 <토이 스토리 2>의 사례처럼 극장에서는 개봉 않는, 'DVD용 영화'(direct-to-DVD film)로 기획했더랬지요. 개봉일로 잡은 해는 2008년이었고요. 그랬건만 이것이 극장용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으로 성장한 건 캐릭터들과 스토리가 너무나 훌륭하게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판의 미로 Pan's Labyrinth>와 <헬보이 Hellboy>를 만든 세계적 영화감독인 길에르모 델 토로가 제작총지휘자(Executive producer)로 참여하게 된 것이겠지요.

전설이 될 이름, 장화신은 고양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푸스'는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은 영웅으로 거듭난 고양이의 무용담이다. 정의를 위해 헌신한 무법자의 무용담...! 내 이름은 '장화신은 고양이'다. 이제 나의 이름은 전설이 될 것이다.(This is the story of a cat who became a hero, An outlaw dedicated to justice. I am Puss in Boots. And my name would become legend)!” 과연 그의 호연장담처럼 <장화신은 고양이>가 드림웍스의 새로운 대작 시리즈로서 포문을 열지, 사뭇 기대가 큼니다. **AF**

자유를 향한 유쾌한 에피소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던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는가. 한 줄기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죄수들에게 들려오던 아름다운 선율, 잿빛 감옥에 찾아온 그 감동의 순간을...

촉망받는 은행 간부에서 하루 아침에 수감자가 된 앤디... 살인 누명을 쓴 그는 억울한 감옥생활 중에도 재기를 잃지 않으며,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지옥같은 감옥에 영혼의 자유를 선사한다. '편지의 이중창' 이 주는 평화로움... 그것은 죄수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를 달래주는, 영혼의 안식이었다.

'편지의 이중창' 을 작곡한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잘 알려진 모차르트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처럼 언제나 '자유' 를 갈망하던 예술가였다. 동료 작곡가들이 왕이나 귀족에 복종하며 궁정의 하인으로 살아갈 때, 모차르트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었다. '프리랜서 작곡가' 로 당당히 독립하고, 홀로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편지의 이중창' ... 모차르트는 이 감미로운 아리아 속에 자유를 향한 갈망을 숨겨 놓았다. 이 음악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때는 바야흐로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영주라는 사람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의 하녀가 결혼할 때면 첫날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초야권' 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으니 말이다. 요즘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일이

200년 전에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당시 하인들의 삶이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 없는 가슴 아픈 것이었으리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을의 제일가는 이발사 '피가로'는 '수잔나' 와 결혼할 생각에 들떠 있다. 신혼방을 꾸미고 수잔나와 함께 할 결혼생활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피가로... 하지만 수잔나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들이 섬기는 백작이 자신을 노리는 음흉한 눈빛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초야권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백작이었지만, 어여쁘고 발랄한 수잔나를 두고 백작은 마음을 바꿨다. 이 예비부부의 신혼방을 자신의 거처 옆에다 마련해 주고는 은밀한 계락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백작의 흑심을 알게 된 피가로.. 그는 백작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한다. 사실 백작과 지금의 백작 부인이 결혼하기까지는 피가로의 공이 컸다. 욕심 많은 후견인의





감시 때문에 그 누구와의 접근도 금지되었던 '로지나'를 만나게 해주고, 그녀를 백작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백작이 이제는 자신의 약혼녀를 노리고 있다니... 피가로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어떻게 하면 백작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지만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지, 피가로는 고민에 빠져 있다.

한편 백작의 음흉한 계획에 누구보다 슬퍼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백작부인이었다. 한때 자신을 그 누구보다 아껴주었던 남편이지만, 이제 하녀에게 마음을 품고 있는 백작을 보면서, 백작부인은 큰 슬픔에 잠겼다. 더군다나 백작은 수잔나에게 어두운 밤에 몰래 만나자는 은밀한 제안을 했던 것이다. 상황은 더욱 급박해지고, 백작의 흑심을 알게 된 수잔나와 백작부인은 피를 내는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백작에게 편지를 쓴다. "산들바람에 노래를 실어... 아 오늘 저녁에는 산들바람이 부는군요... 멋진 소나무 아래" 이렇게 노래하는 '편지의 이중창' 이 바로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아름다운 아리아이다. 백작을 골탕 먹이기 위해 수잔나와 백작부인이 몰래 계획을 꾸미는 아리아인 것이다.

이 편지를 받아든 백작은 한껏 들떠 있다. 드디어 수잔나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신이 난 것이다. 한편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피가로는 우연히 수잔나가 백작에게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수잔나를 의심하며, 그들이 만나기로 한 정원에 나온다. 이 기회를 틈타 남자들을 단속하려는 수잔나와 백작부인도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약속된 장소에 나와 있다.

수잔나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백작부인을 안으려는 백작, 그리고 자신의 수잔나(실제로는 백작부인)가 백작과 함께 있는 것을 몰래 숨어보면서 흥분하는 피가로, 그리고 백작부인인 척하면서 피가로에게 잔소리 하는 수잔나... 이 두 커플은 서로에 대한 엇갈린 마음에 씩씩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결국 얽히고설킨 오해



끝에 밝혀지는 진실... 그것은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자작극이자 도전이었다. 백작은 자신이 만나기로 했던 수잔나가 사실은 백작부인임을 알고 크게 놀라고, 다급한 마음으로 백작부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백작부인은 남편의 못된 행실에 화가 났지만 큰 문제없이 해결된 것에 만족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백작의 용서를 받아들인다. 백작 때문에 난처했던 수잔나도 피가로에게 결백을 입증했으니 더없이 잘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피가로와 수잔나, 그리고 백작과 백작부인 커플은 행복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결혼식 날 하루 동안 있었던, 웃지 않을 수 없는 에피소드로 마무리하면서... 이 재치만점의 오페라를 작곡한 모차르트는 사실 희극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겨 놓았다. 백작의 하인인 피가로가 알고 보니 귀족의 자제였다 것은 물론이고, 백작부인과 수잔나의 옷을 서로 바꿔 입힌 것, 그것은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모차르트는 웃을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 속에,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 속에, 날카로운 비판을 숨겨두었다.

아마도 모차르트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 속에 숨겨 두었을 것이다.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하는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었던 모차르트는 그러한 음악을 통해 사회에 대항했을 것이다. 음악에서만큼은 그 어떤 신분과 계층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기에... 음악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기에... 지옥같은 감옥에서도 음악으로 영혼에 자유를 선사한 <쇼생크 탈출>의 앤디처럼 말이다. **AF**



고양이를 부탁해

요즘은 고양이가 대세다. 도시의 뒷골목이나 어둠의 밤거리를 고양이 접수한 지도 오래. 반려동물 키우는 것에도 유행이 있어 '핫(Hot)하다'는 소릴 들으려면 고양이 한 마리쯤 키워줘야 한다. 개에 비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고양이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애묘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가 하면 고양이 카페에 고양이 뽐내기 대회까지 날이 갈수록 고양이가 바꾸는 세상 풍경이 늘어가고 있다.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를 따져보면 고대 이집트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야생고양이를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한 것이 그 최초다. 이후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귀족적인 취미로 여겨져서 이집트에서 그리스, 로마로 이어졌고 곧 유럽 전체로 퍼졌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도시에 넘쳐 나게 되자 1630년대에는 고양이 대학살이라는 시련까지 겪어야 했다. 그 이래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고양이에 대한 인간들의 관심과 애정은 '검은 고양이 네로'와 '헬로 키티'를 거쳐 '옥탑방 고양이'에, '길고양이'에게로까지 넘쳐나고 있다.

그런 길고양이를 틈에 벽을 타고 오르는 기묘한 고양이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무슈 샹(Monsieur Chat), 바로 고양이 씨다. 무슈 샹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7년 프랑스 중부의 작은 도시 오를레앙에서였다. '고양이를 그리는 낙서화가'로 유명해진 올해 서른여덟 살의 토마 뷔유(Thoma Vuille)의 붓끝에서 무슈 샹은 탄생했다. 당시 오를레앙 미술학교에 막 입학했던 작가 토마 뷔유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



는데 그의 수업에는 파키스탄에서 이민 온 한 소녀가 있었다.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던 소녀는 어느 날 아주 우스꽝스러운 고양이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본 아이들이 다같이 웃음을 터트리면서 소녀는 비로소 아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 작은 사건은 토마 뷔유에게 하나의 영감을 제공했고, 그는 바로 도시의 지저분한 길모퉁이 벽 위에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 넣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고양이 프로젝트는 오를레앙을 떠나 프랑스 전역에서 이뤄졌다. 2000년부터 파리에서 작업 중인 그 덕분에 파리에만 80마리가 넘는 무슈 샤가 벽에 매달려 살고 있다. 커다란 함박웃음을 물고 있는 통통한 노랑 고양이. 때로 그의 등에서는 흰색 날개가 돌아나 더 먼 곳까지 날아가 자유와 평화를 퍼트린다.

그렇게 돈을 날개를 타고 무슈 샤는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뉴욕, 홍콩, 베이징을 거쳐 2008년 드디어 서울에도 상륙했다. 대학로 거리와 홍대 앞 골목, 삼청동의 어느 2층 집 벽에서도 무슈 샤를 만날 수 있다. 아니 그에게는 한국식 이름이 따로 있다. 무슈의 발음이 쉽지 않은 아시아인들을 위해 다시 얻은 토마(ttoma).

서울 거리 곳곳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토마를 남긴 작가 토마 뷔유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두운 곳에서 태양과 같은 밝음의 상징이자 사람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웃음을 짓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고양이 엄마 아빠들이 고양이로부터 삶의 온기를 얻듯이 자신이 내놓은 셋노란 길고양이 토마로부터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함께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자신의 작업은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예술 혁명이라는 그의 말을 되새기면서 서울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토마의 흔적을 따라다녀 보는 것도 햇살 좋은 어느 날의 즐거운 나들이가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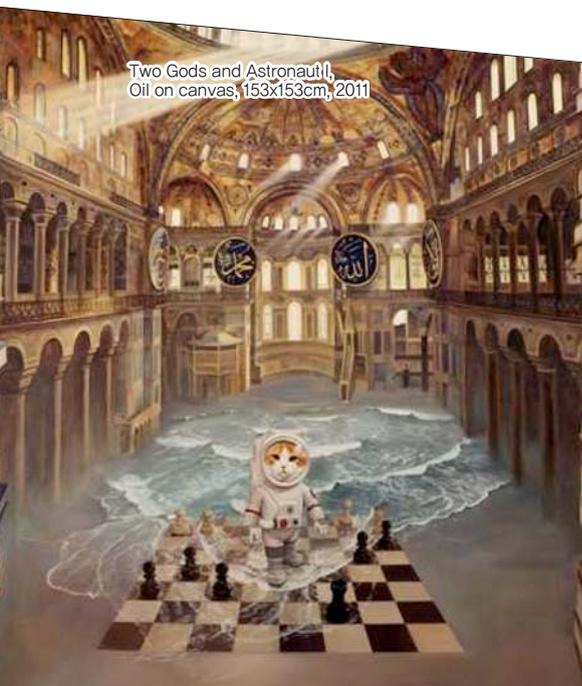
나는 고양이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의 단편 소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영어 교사가 기르는 고양이의 시선으로 본 인간사회에 대한 풍자나 냉소가 이 작품의 핵심. 이 작품을 읽다 보면 고양이스럽지 않은 그 냉철한 시각에 반하고 만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다만 우스운 것은, 이 한가한 인간이 특하면 바쁘다 바빠하고 떠들어댈 뿐만 아니라, 그 얼굴빛이 사뭇 바쁜 듯한, 잘못하면 '바쁘다 바빠'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사소하게 얽매이고 있던 말이다.' 이런 문장만 봐도 고양이가 가진 내공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양이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 만화가 크게 늘었다. 심지어 잘 나가는 꽃미남 꽃미녀들의 전유물인 사진집도 한두 권이 아니다. 애완동물이면서도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밀어내면 슬그머니 다가오는 밀고 당기기의 명수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고양이는 토마 뷔유 말고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대상이다. 지난 달 강남의 카이스 갤러리에서 이경미 작가의 개인전에서도 우린 심상치 않은 고양이를 만날 수 있다. 이경미 작가에게 고양이는 작업실의 동거인이자 작가가 지닌 내면의 상처가 투영된 존재다.

그녀의 그림에 고양이가 자주 등장하고 그녀가 '고양이 작가'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마 뷔유의 캐릭터화된 무슈 샤와는 달리 이경미 작가의 고양이는 금방이라도 화폭에서 뛰어나올 것처럼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다. 또한 이경미 작가의 고양이가 머무는 곳은 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일 때가 많아 지극히 현실적인 고양이 모습과 대비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그 이색적인 풍경은 고양이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바깥세상을 꿈꾸는 작가의 바람이기도 하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보낸 쓸쓸하고 외로운 젊음의 초상이기도 하다.

이경미 작가의 고양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토마 뷔유의 고양이처럼 씨익 웃음을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건, 무슈 샤, 고양이 씨라면 이 쓸쓸하고 외로운 고양이들에게도 해맑은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AF**



Two Gods and Astronaut I, Oil on canvas, 153x153cm, 2011



Solitude, 30x40cm, oil on constructed birchwood, 2009



Nana globe, Oil on globe, 10x10x14cm (each), 2006

위로가 필요해

“매일 아침 6시 출발, 하루 10시간의 평균...”

혹시 편하게 올라오면 본인의 바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어떤 업을 만들면 그 간절한 답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무모하고 순수하지만 간절한 생각에서...”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몇 일 전 일산 MBC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유재석같은 MC가 되는 것이 꿈이고, 그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왔다고 한다. 보름동안, 걸어서 말이다. 청년은 매일 찜질방에서 자면서 보름동안 자신이 느낀 것들을 썼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었다. 결국 청년은 김태호 PD의 주선으로 유재석을 만났고,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길까지 유재석과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한다.

청년이 유재석처럼 훌륭한 MC가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보름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온 끝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과 만났다. 그에게 유재석을 만난 건 단지 유명인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그 청년처럼, 유재석은 20대 시절 최고의 MC가 되겠다는 꿈을 꿔다. 하지만 그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매번 코미디 프로그램의 엑스트라로 출연했고, 한 번 겨우 나간 리포터 자리에서는 실수를 연발했다. 그가 <무한도전>에서 부른 ‘압구정 날라리’와 ‘말하는 대로’는 자신의 20대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다. 스스로는 ‘사실 나는 킹카였어.’라며 호기롭게 외치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 친구 차를 얻어 타던 신세였고, 아무 일도 없어서 ‘내일 뭐하지’를 되뇌며 걱정했었다. 그 때 유재석은 밤마다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기도했다고 한다.

유재석은 단지 성공한 MC가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10년을 버틴 사람이다. 부산에서 올라온 그 청년에게 유재석을 만난다는 건, 자신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확인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요즘 우리 사회에 ‘멘토’라는 말이 유행하는 건, 이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MBC <위대한 탄생>에서는 ‘멘토제’를 통해 유명 뮤지션들이 가수가 되고픈 사람들을 지도하며 발전시켜 준다.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우리 사회의 멘토’라는 표현이 붙기도 한다. 멘토는 ‘롤모델’이라는 말에 비해 현재에 더 중심을 두는 단어다. 롤모델은 내가 언젠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다. 반면 멘토는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 지난해 <위대한 탄생>에서는 김태원이 멘토로 활약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아무도

합격시키지 않은 몇 명의 참가자를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캐스팅했고, 결국 그들 중 한 명을 우승시켰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 또는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최근 한 CF에서는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며 아직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위로를 건네는 멘트를 넣기도 한다. 과거에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라는 식의 격려가 대중문화에서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다”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위로가 필요한지는 당장 TV만 틀어봐도 알 수 있다. 뉴스에서는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 취업 문제로 괴로워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설 새 없이 나온다.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의 전작들인 <거침없이 하이킥>과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청년 실업은 거의 나오지 않거나 가볍게 다뤄지는 문제였다. 경제적으로 크게 모자랄 것 없는 청년들이 밝고 즐겁게 살아가다 사랑이나 공부 문제로 고민하는게 전작들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는 10~20대에게 닥친 가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 작품에서 청년 실업자 백진희는 정규직도 아닌 인턴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회사 사장과 면접장에서 10초 만에 짜장면을 먹는 내기를 한다. 결국 10초 만에 짜장면을 먹고 통과했지만, 첫 날 인턴 교육에 늦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그나마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는 일을 하라며 밤낮없이 전화로 호출한다. 또한 그의 옆집에 사는 가족들 역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당한 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 둘째인 안수정이 자신의 작은 다락방을 지키기 위해 아빠와 오빠 등과 싸우는 장면은 코믹하면서도 현실의 팍팍함이 함께 배어 있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미래는 더 나아질 거야”라는 말이 아니라 “힘들지”라는 한마디 아닐까.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화려한 연예인이지만 그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면서 속을 드러낸다. 중견 탤런트 김영철은 아내와의 사이가 틀어졌던 것에 대해 담담하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티 팬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했던 옥주현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 받았다고 말한다.

취업을 못하는 대학생부터 연예인까지 모두 마음 한 구석에 슬픔과 고통이 있고, 이제는 TV 프로그램마저 위로를 내세울 만큼 사회 전체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온 셈이다. 유재석이 요즘 더욱 각광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유재석은 과거에 많은 고생을 했고, 성공한 지금도 그 시절을 잊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에 나에게 힘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 MBC <무한도전>과 SBS <일요일이 좋다>의 ‘런닝맨’에서 유재석과 함께 출연 중인 리쌍이 새 앨범에 수록한 ‘회상’에 “될 때까지 노력하는 유재석. 그 성실함을 배워.”라는 가사가 들어간 것은 유재석과 같은 ‘멘토’를 바라는 사회적 바람이 반영된 것 아닐까.

될 때까지 성실하게 노력하면 유재석처럼 될 수 있다, 또는 그렇게 성공한 유재석 같은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 부산에서 일산까지 걸어온 그 청년이 유재석에게 바랐던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바랐던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 **AF**



조승우가 만드는 또 하나의 신화,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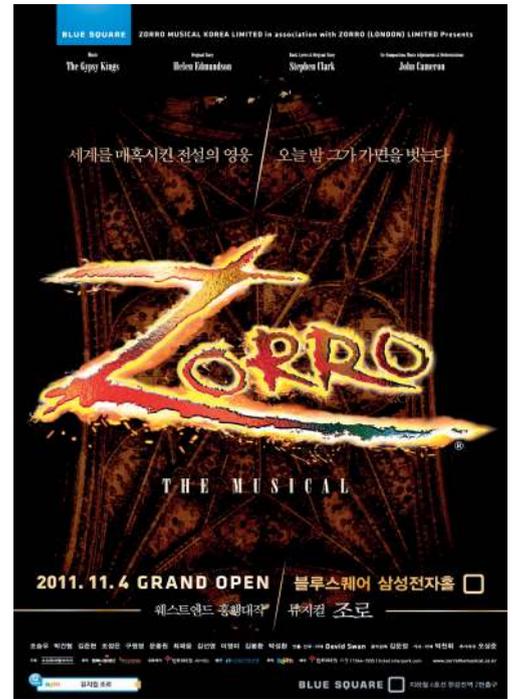
〈조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조승우가 돌아왔다. 가을을 끝까지 물들일 것 같은 음악과 화려한 검술, 플라멩고의 열정으로 뿔뿔 뭉친 채 관객을 맞을 준비를 모두 끝냈다. 뮤지컬 〈조로〉의 히어로로 다시 한 번 한국 뮤지컬계의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해 그는 철저히 로맨틱한 영웅으로 변신했다.

뮤지컬 '조로'는 이름 그대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원작이다. 그 뒤로 수많은 영화로 다뤄졌지만, 이번 뮤지컬이 기대되는 이유는 작품성을 뒷받침해 줄 스타급 제작진들이 이미 런던무대에서 흥행을 거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리와 브라질, 일본 등에서 공연됐고 이제 서울과 상해, 암스테르담이 인기 대열에 합류한다. 내년에는 뉴욕과 베를린 등에서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뮤지컬의 세계적 대세를 한국이 선두그룹에서 이끌어 가는 셈이다.

'여우'처럼 총명하고 카리스마 있는 주인공 조로와 순진한 루이사. 그리고 조로의 친구지만 조로를 미치도록 질투하는 라몬,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집시여인 이네즈의 현란한 사랑 이야기가 가면 속의 전설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증명해 보인다. 4세대가 사랑한 영웅, 조로의 가을이 왔다.

- 기간 : 2012년 1월 15일까지
- 가격 : VIP 13만 / R 11만 / S 8만 / A 5만 / B 3만원
- 장소 :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 홈페이지 : www.zorrothemusical.co.kr



헤어지고 다시 시작된 그들의 연애,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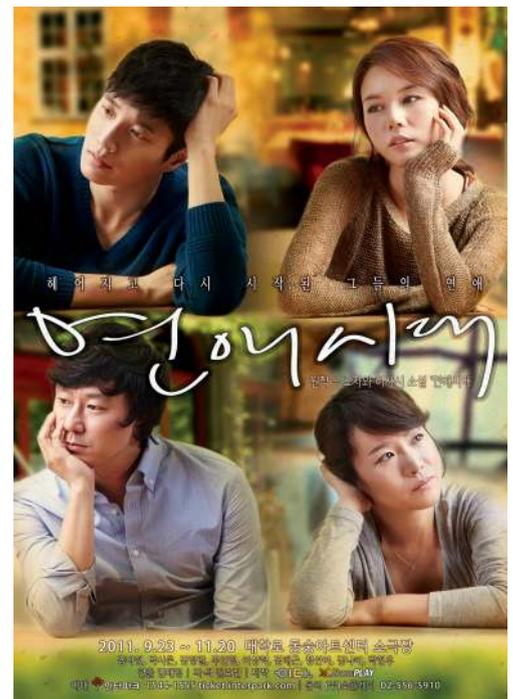
〈연애시대〉

이혼 후 다시 시작되는 부부의 연애이야기. 우리에게 손예진, 감우성 주연의 드라마로 더 알려졌다. '헤어졌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부제 속에 당시 수많은 연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낸 명대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맞는다.

이혼한 뒤에서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비단 결혼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연인 사이에서도 이별한 뒤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인연에 대한 소중함만은 아닐 것이다. 지나간 시간들의 연장선에 얼마든지 다시 설 수 있다는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용기백서'. 헤어진 사람들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쯤은 덮어두자.

연극 〈연애시대〉는 연극의 본거지, 대학로에서 공연된다. 연극의 소소한 멋을 한껏 살려 배우 전원이 참석하는 '팬사인회'와 '포토타임'도 기대할 만하다. 단, 포토타임을 원하는 관객들은 트위터 (@yeonae_time)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바야흐로 연애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연극이 마련해 줄 것이다.

- 기간 : 11월 20일까지
- 가격 : 전석 4만원
- 장소 :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홈페이지 : www.dsartcenter.co.kr



Opinion

젊음을 숙성시키는 터전, 공군
* 독자기고

정신건강, 건강의 첫걸음
* Health Diary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 책마을



젊음을 숙성시키는 터전 공군



其一(기일)

지난 5월 하순 큰 아이를 군에 보냈다. 아이를 군에 보내는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우리 부부 역시 마음이 불편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저놈이 제대로 적응이나 하려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놈은 좀 튀는 놈이었다. 신문방송학 전공에다 입대 전까지 학교 신문기자하던 놈이라 까칠하기가 웬만한 현직 기자 뺨쳤다.

그런데 6주간의 신병 훈련을 끝내고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에서 녀석을 보곤 정말 깜짝 놀랐다. 말끝마다 "우리 비행단, 우리 관제대, 어찌구" 하며 부대 생활상을 전하는 게 거의 비행단 홍보대사 수준이었다.

자대 배치 받자마자 홍보대사?

운항관제병인 아이가 전하는 부대 분위기는 대체로 이랬다. 선임들은 아이가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현장직무훈련(OJT)을 시켜줬을 뿐 아니라, 주전부리까지 사주는 등 거의 친동생 대하듯 한다고 했다. 기독교인인 원사님은 아이를 수시로 개인면담해 주고 그때마다 기도도 해주신단다. 부서장인 소령님(공군 여성



생도 1기) 또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엄마처럼 꼼꼼히 챙겨주시고, 한여름엔 수박을 사가지고 출근하는 적도 있을 정도로 부하들을 끔찍이 아끼신단다.

아들놈은 덤으로 입대 후 몸무게가 무려 11kg이나 빠졌다. 88kg-11kg=77kg이다. 녀석에게 공군 이병 급여를 몽땅 국고에 반납하라고 주문했다.

10월 중순 녀석이 자대 배치 후 첫 휴가를 나왔다. 휴가 나와도 별로 시큰둥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거나 영화구경 아니면 놀러 가는 것 빼곤 부대 있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였다. 부대에 있는 선후임이 바쁠 거라며 얼른 귀대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其二(기이)

1975년 10월 소위로 임관한 나는, 지금 아이가 근무하는 부대에 부임했다. 성남 비행장에서부터 분가하는 부대전개팀의 일원으로 제8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 당시 '횡성 육군항공대'라 불리다 공군으로 전군한 제8전투비행단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신설 부대여서 모든 게 낯설고 미흡했다.

유신(維新) 치하서도 空軍은 자유로워

유신을 맞았다. 장교에게도 한 달 동안 영내 거주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도 우린 금방 화기에애해졌다. 아니 화기에애를 넘어 그 시절 사회에서도 누리지 못한 '자유'를 향유했다.

부대 밖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원주 시내 내 자취방은 금세 사랑방이 됐고, 일요일 오후엔 인근 섬강(蟾江)에 나가 천렵을 가거나, 닭백숙을 해 먹기도 했다.

복무 중 배운 지식, 기자생활에 활용

보급 특기였던 나는 공군에서 기안서(起案書) 쓰는 법과 각종 보급 시스템, 그에 더해 당시 최신에 전폭기였던 F-4 팬텀의 제원(諸元) 등 어깨너머로 정말 많은 것을 습득했다. 그때 습득한 지식은 나중에 기자가 돼 국제 및 안보 분야를 담당하게 됐을 때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했다.

공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제대한 뒤 나는 깨닫게 됐다. 훈련 기간을 포함해 무려 4년 5개월이나 되는 기나긴 복무기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其三(기삼)

흔히들 군에 가서 '씩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군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다. 군에는 시스템이 있다. 병사들로 하여금 임무 수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말이다.

우리 군은 건국초기 가장 앞선 시스템을 가진 조직이었다. 그중에서도 공군은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었다. 오늘날 공군은 가장 현대화된 시스템을 도입, 운용하는 조직으로 변신해 있다. 이 얘기는 군이, 특히 공군이 더 이상 기존 사회에 비해 낙후된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다.

군(軍), '씩는 곳' 아니라 '숙성하는 곳'

군은 인성(人性) 교육의 마당이기도 하다. 아이가 복무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신익현 단장의 지휘방침 설명에서도 그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26일 병사 부모초청행사에서 아들과 함께 좌정한 가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요즘 젊은이들, 의지박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부대 장병들이 독립인격체로 홀로 서기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남을 배려하는 심성도 부족하죠. 저는 이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의외로 체력도 약합니다. 8전비에 근무하면서 체력 강화를 하지 못했다는 원성을 듣지 않으려고 각종 단련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 풋살구장도 몇 개 있습니다. 성공한 CEO 1,000명을 조사해보니 900명이 평소에 자신의 꿈을 글로 적어왔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규율보다 자율에 기반하여, 병사들이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꿈을 비주얼화하는 기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군은, 아니 공군은, 의지가 약한 청년을 독립 인격체로 키우고, 에고이스트인 젊은이에게 남을 배려하는 심성을 고양시키며, 약골을 강인한 전사로 환골탈태시키며, 희미한 꿈을 구체화하는 공간인 것이다. 고로 군은, 아니 공군은 젊음을 '씩히는 곳'이 아니라 '숙성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아들도 24개월의 공군 복무를 끝내는 날, 지금보다 훨씬 탄탄한 몸에 독립 인격을 담은 숙성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로 부모 품에 안길 것으로 굳게 믿는다. **AF**



정신건강, 건강의 첫걸음

최근 신문지상에서 '군 간부 10명 중 1명, 정신과 상담필요' 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군 간부의 자살이 증가해 국방부에서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했는데 '관심' 또는 '위험' 판정이 10.2%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자는 심적 고통을 겪는 간부가 10명 중 겨우 1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군 간부의 경우, 해당 부대의 관리자로 주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군 간부의 심리적 건강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Health Diary)의 주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루볼까 합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증가

현대사회에서 '상담'이라는 용어는 매우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생활 속 어디에서나 흔히 접할 수 있죠. 특히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기업체를 비롯하여, 학교, 병무청, 경찰서, 교도소 등의 기관에서도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리적 고통을 '나약함' 혹은 '무능력'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면, 현재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갈등, 자녀양육문제, 진로 고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개선시키고자 심리치료를 받거나 정신과진료를 받는 경우가 현대에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기업체에서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과 관련된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직원들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해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군 장병들을 위한 심리상담의 필요성

그렇다면 군에서는 어떨까요? 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장병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사를 채용, 사고를 예방하고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군에서도 이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금년에 심리상담사를 채용했으며, 그중 임상심리전문가는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조종사와 격오지 부대장병들의 심리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입니다. 이는 군대에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로 단순히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와 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할 겁니다.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심리상담의 필요성

어느 직업에서나 직무 스트레스가 존재하겠지만 조종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타 직업군에 비하여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비행안전 스트레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중 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긴장상태를 요합니다. 비행사고에서 인적요소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진 바, 비행 중 조종사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항공우주의료원 임상심리상담실

건강관리센터에서는 조종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임상심리사로 하여금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의 조기발견 시 생존율이 높듯이, 심적스트레스 및 장애 또한 Screening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조종사의 비행안전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군생활 적응 문제, 가족갈등, 자녀양육문제, 진로고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상담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공군식구들에게 문이 열려있으니,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을 노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상담이 모든 고민에 대해 해답을 안겨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직시하게 해줄 뿐이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연말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연말에 모든 공군 장병 및 군무원 분들의 심리적 안정감(well-being)을 찾기를 바라며 이번달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AF**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

공군 조종사 대상 임상심리검사 및 상담 소개

주요 활동

항공 임상심리사란?

비행상황에 대한 이해 및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활동을 주로 함.

임상심리사 채용
2011. 7. 1.

정기 신체검사 시 조종사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비행단 방문 활동

- 방문 비행단 소속 조종사 심리상담
- 비행 현장 및 조종사 업무에 대한 이해
- 사고 발생 시 심리안정 프로그램 개입

공군 장병 심리평가 및 치료

- 내원하는 공군인 대상 심리상담
- IPTV(Internet Protocol TV)를 활용한 원격상담 실시(원거리 장병 상담)

전반적 지능
기억력
주의집중력
문제해결력
상황판단력

인지 능력

성격

심리검사로
알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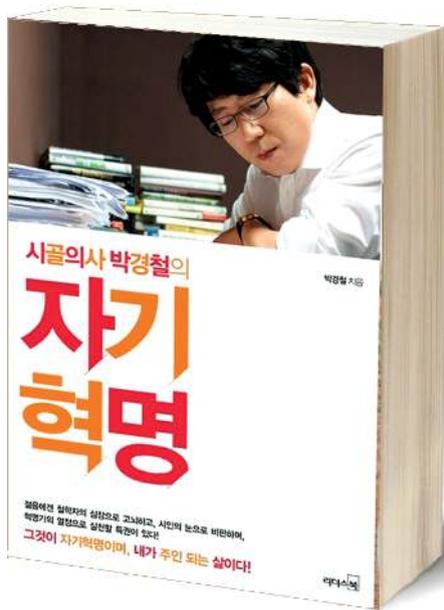
정서

대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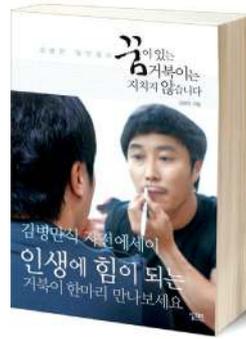
전반적
적응상태
평가

임상
심리적
개입

안전한
비행 도모



박경철 지음



김병만 지음



법륜스님 지음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몇 달 전입니다. 한 주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차를 몰아 아내가 있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안철수 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선배들로부터 가벼운 플라스틱 바통을 이어받은 세대다. 그러나 우리는 후배들에게 쇠로 만든 무거운 바통을 이어주고 있다. 지금의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그들이 받고 있는 상실감에 대하여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정확한 표현까지는 제대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국민윤리 교과서에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했지만, 병영 내에서 우리의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 스무 살이 넘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 역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과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하는 참담함은 그들을 지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여러분을 삶의 주인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책 세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박경철 지, 리더스북, 2011),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김병만, 실크로드, 2011), 「힘내라 청춘」(법륜 스님, 정토출판, 2011)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박경철 원장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방법, 책의 제목 그대로 자기혁명을 통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아니 달인 김병만의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는 자신만의 꿈을 키우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청춘콘서트의 게스트로도 참여하고 있는 법륜 스님의 「힘내라 청춘」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와 관련해 가질 수 있는 고민, 이를테면 군에 있는 동안의 연애와 건강, 지휘관 또는 선임과의 관계, 전역 후 미래의 진로 등 구체적인 물음에 대해 답을 제시해줍니다.

1939년 개봉된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대사인 “Tomorrow is another day.”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도 내일의 태양은 공평하게 떠오를 테니 늘 꿈과 희망을 갖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보내는 11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F**

2011 November

Vol.401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
조종사
날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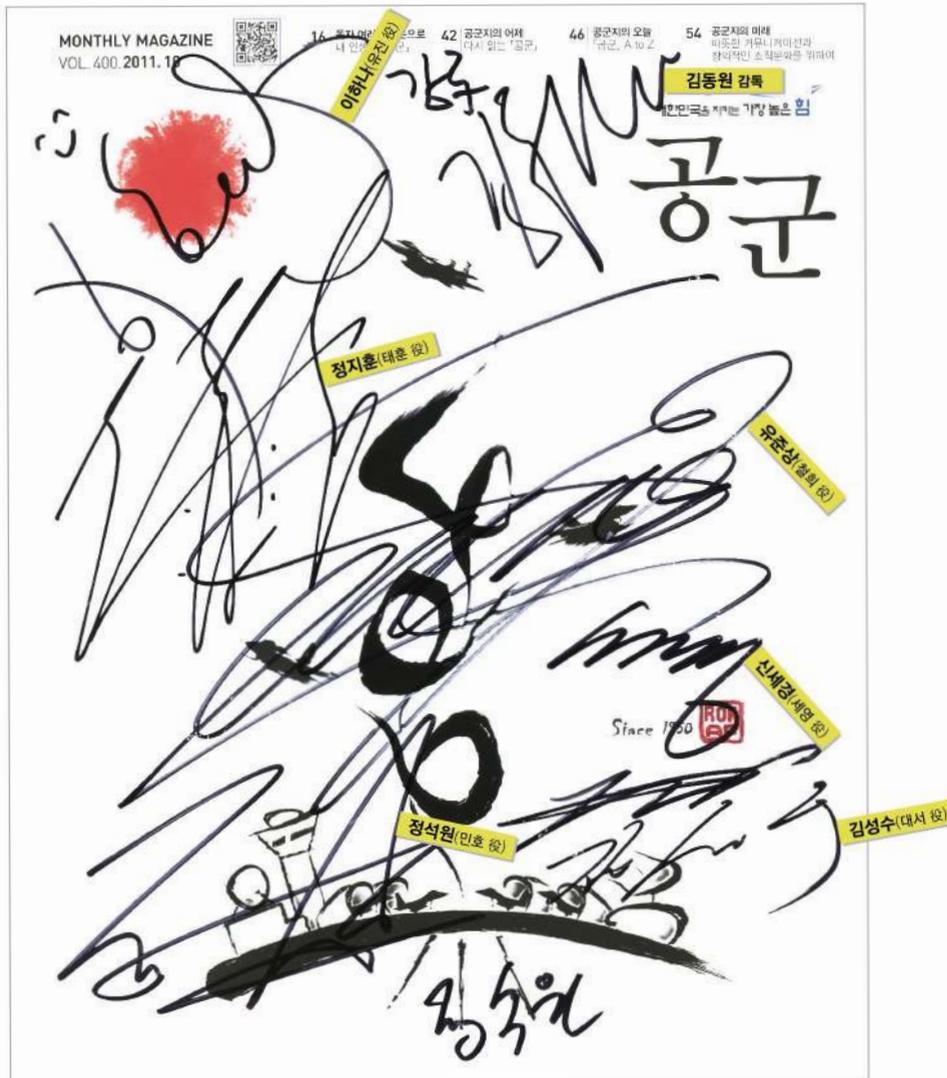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영화 '비상(飛上 : 태양 가까이)'의 김동원 감독과 정지훈, 신세경씨 등 출연배우들이 공군지 400호 특집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지난 호 표지에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1 November

Vol.401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1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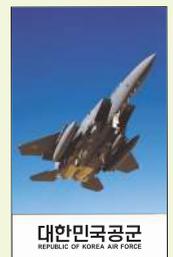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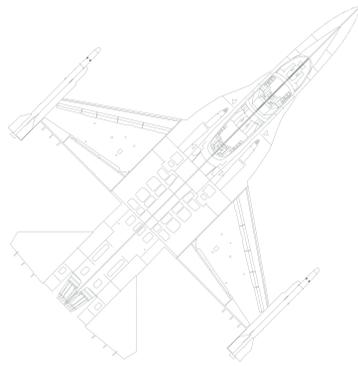
.....

11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8G를 보내드립니다.



2013년

제4기 국민조종사 선발!

당신의 도전
을
기다립니다.